

## 루비오 미국무장관 “이란은 급진 이슬람 정권… 자국민 탄압”

미국·이란 간 전쟁 중 기자회견 통해 강도 높은 비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급진적 이슬람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자국민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 테러적이고 급진적인 이슬람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이 자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며 “그들은 거리에서 자기 국민을 학살할 의



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통치 구조를 직접 겨냥하며, “이란은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급진적 이슬람 정권이 더 이상 핵무기와 군사 역량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때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의 신정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수사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핵미사일 역량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이 자국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겠는가.

다른 나라에는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란 정권의 폭력성을 국제 안보 위협과 연결 지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군사 작전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작전의 목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고 미사일 및 군사 역량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고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비판을 공개적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어진 ‘혁명 이념 확산’ 논의 이란 정치 체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오래 논의돼 온 개념이 바로 ‘이슬람 혁명

이념의 확산’이다. 이는 1979년 이란 혁명이 단순히 국내 정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슬람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란 혁명 지도자들은 혁명의 정신과 정치 모델이 세계 이슬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정치·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이어 왔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이 중동 지역의 여러 무장 조직이나 정치 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헤즈볼라(Hezbollah), 하마스(Hamas) 그리고 예멘의 후티스

(Houthi) 등이 이란과 연관된 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루비오 장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사태와 테러 네트워크 뒤에 이란 정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결합에 대한 국제적 논의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종교와 정치 권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란의 정치 체제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정책과 외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국제 정치에서도 독특한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란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세계관과 신학적 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종교 정치 구조가 중동 지역의 갈등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 국민과 이란 정권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란 국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부가 주도하는 정치 체제와 정책 방향을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발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란 정치 체제와 종교 권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종교 지도자가 국가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체제가 중동 정세와 국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북한 억류 선교사 구명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

5일 기감 본부교회서 ‘기감 2026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7대 대사회적 중점사업 설명

한국교회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구명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일영 소재 기감 본부교회에서 ‘기감 2026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재성 행정기획실장이 김정석 감독회장을 대신해 올해 기감의 한국 사회를 향한 7대 중점사업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부처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간 면담이 이뤄졌으며, 한교총 대표회장인 김정석 감독회장 등 한교총 관계자들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된 선

교사 3명과 자국민 3명에 대한 구명 방안이 논의됐다. 심재성 실장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미 국무부와 함께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제적 사안을 포함해, 기감은 올해 한국 사회를 향한 7대 중점사업을 한교총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첫 번째 과제는 차별금지법 반대입장이다. 심재성 실장은 “기감은 교회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설교와 신앙 표현의 위축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제한 ▲역차별 및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 등을 조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 실장은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에 어긋난다”며 교단 측 입장을 전했다. 두 번째는 사학법 재개정이다. 심재성 실장은 “일부 사학 비리 문제를 이유로 전체 기독교 사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감은 비리는 엄정히 바로 잡되, 사학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는 저출산 극복과 자살 방지 대책이다. 심재성 실장은 “기감은 중독

과 자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큼을 인식하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과 가치를 적극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교회 부동산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동·청소년·장년·노년을 아우르는 ‘교회 돌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기감은 사회와 연대해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창조세계 보전이라는 신앙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감리교 내에서도 교계 내 기후위기 대응 사역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연대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섯 번째는 낙태 및 약물 남용 문제다. 심재성 실장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2017년 대한산부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그해 낙태가 110만건, 출생 아동 수 35만 7천건으로 기록됐다. 그해 출산된 아이의 3배 이상이 낙태된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낙태 방지가 중요하기에, 태아의 생명권 지키는 데 목소리를 내고 관련 방안을 강구해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예방·치유 사역 확대도 전했다. 여섯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평화통일 운동이다. 심재성 실장은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교회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통일 문제

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감은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북한 지역에 뿌리를 둔 교회 전통이 있다”며 “북한 내 감리교회 회복과 복음화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거 북한 지역 감리교회들이 속해 있던 서부연회를 통일운동의 기반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실장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통일운동의 목표는 북한 복음화와 통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는 기독교 근대화유산의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다. 19세기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의료기관 등이 한국 근대 형성에 기여했음에도 충분한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그는 서울 동대문 지역 최초 여성 의료기관과 교회였던 동대문감리교회가 서울시에 의해 수용돼 사라진 사례를 언급하며 복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교단 내부적으로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4대 안전망(의료·도농·교육·경제)을 구축한다. ▲의료안전망: 교단 소속 병의원을 선교 특수단체로 지정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도농안전망: 도시농촌 교회 간 직거래 플랫폼 구축 ▲교육안전망: 농어촌 목회자 자녀 기숙학교 특례 및 장학 확대 ▲경제안전망: 연회 단위 부담금 확대를 통한 미자립교회 정기 지원을 전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성 실장이 기감의 7대 대사회적 중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기자간담회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이용한 이사장 취임 >> 7면

美남자하키, 동계올림픽 46년 만에 금메달 >> 24면

아울러 기도운동은 24시간 릴레이 방식의 ‘100년 기도운동’으로 확대한다. 현재 611개 교회가 참여해 2만5천 시간 이상 누적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교단 소속 교회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도운동 역시 4월 미디어태이를 기점으로 상시 체계화하고, 11월 전국 집회를 계획 중이다. 그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감리교인이 동참하는 실질적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에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 준비 본격화

### 기윤실 실무 맡아 준비 본격화... 카이퍼 사상 실천 사례 세계교회와 공유 및 한국인 대상 카이퍼 상 수여 예정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7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인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교회와 정치’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을 연구하는 세계적 석학들과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변혁을 실천해 온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 준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개최 확정 소식과 함께 향후 준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 연구와 실천을 잇는 국제적 연대 모임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언론인, 교육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세계적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모임이다. 단순한 학술 발표에 그치지 않고, 카이퍼 사상을 기반으로 교회와 사회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변혁을 실천해 온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현대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 지침을 제시해 왔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카이퍼 사상

을 가장 탁월하게 실천한 인물에게 ‘카이퍼 상’을 수여해 왔다. 학문적 논의와 더불어 실제 사회적 실천을 격려하는 점이 이 모임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국제 본부는 2027년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무 책임을 맡아 국내 관련 학자들과 목회자, 기독교 NGO, 전문인 단체들을 연대해 준비에 착수했다.

#### ◆한국 개최 배경... 영역주권과 일반인 총 사상의 활발한 수용과 실천

주최 측은 한국 개최 배경에 대해 “한국 교회와 기독교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을 수용하고 실천해 왔다”며 “한국에는 일찍부터 영역주권과 일반인총을 비롯한 카이퍼 사상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독교 학문 운동과 기독교 시민운동, 기독교 전문인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으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시에 한국 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 사회 갈등과 기독교적 대응이라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경험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준비위원회는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를 통해 한국에서의 실천 사례들을 세계 교회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놓고 국내외 학자와 실천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대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교회와 정치 주제로 세계 석학들 발표... 한국 사례 집중 조명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며, 장소는 현재 서울 시내 교회 또는 대학교를 섬의 중이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되며,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교회와 정치’다. 아브라함 카이퍼 관련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각 영역별 실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실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 가운데 카이퍼 사상을 가장 탁월하게 실천해 온 인물을 선정해 카이퍼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논문 발표 신청은 2026년 5~6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컨퍼런스 총책임자인 미국 칼빈 신학교의 Jordan Ballor 교수가 발표자를 최종 선정한다.

####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 회복 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

이날 인사말을 전한 지형은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는 개인적 신앙에만 머무는 신앙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개인의 깊은 신앙적 만족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포괄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신학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균형 있는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가 한국에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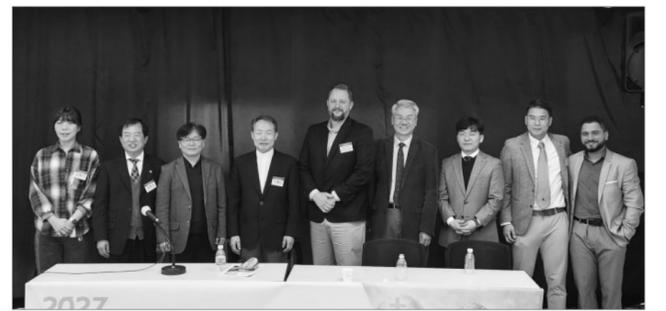
#### ◆복음과 공적 삶의 연결이 핵심 과제... 국제적 연대의 장 기대

이어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의 역사와 위상, 한국 개최 이유’에 대해 Matthew Kaemingk 교수(위트레흐트 신학대학교)가 발표했다. 통역은 같은 대학 신학박사의 연구소 연구원인 김정기 연구원이 맡았다.

Matthew Kaemingk 교수는 “공적인 상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복음과 공적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가는 한국 교회만의 질문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열릴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전 세계 연구자와 학생들이 한국에 모여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컨퍼런스는 학계의 학자들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인물들을 연결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이퍼 상 수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20명이 수상했다. 수상자는 각 영역의 리더들이었다”며 “개인의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다. 빛과 소금과 같은 분들을 선정해 수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왼쪽부터) 정병오 대표, 지형은 목사, Matthew Kaemingk 교수, 김정기 연구원. ©장지동 기자

#### ◆준비 상황과 참여 단체... 국내 연대 본격화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 개최의 의미와 준비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2025년 국제 본부로부터 한국 개최 요청을 받았다”며 “당시 본부는 국내 관련 학자와 단체들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참여 단체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해 기독교세계관학술포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법률가회, 동북아 화해포럼, 라브리 코리아, 서울기독교 세계관연구소, 인권실천시민연합, 영등포 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청어람ARMC 회원회,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현대기독교

연구원, 회원선교회, LAMS KOREA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단체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단에는 지형은 목사, 강영안 한동대 석좌교수, 정현구 에스라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김동춘 현대기독교연구원 원장, 전재중 기독교법률가회 관계자,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는 참여 단체 대표들과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에 관심 있는 학자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2027 아브라함 카이퍼 컨퍼런스가 한국 교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지동 기자

## BEYOND ENTERTAINMENT ELEVATING EXCITEMEN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워커힐**

워커힐의 카카오프러스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소형교회 성장 동력은 제자훈련과 소그룹”

### 관계·훈련 체계 갖춘 교회일수록 성장 뚜렷

소형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 프로그램 확대보다 성도 간 관계 형성과 체계적 신앙훈련을 갖춘 교회가 양적·질적 성장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하나복나라복음DNA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결과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매주 발표하는 통계 리포트 ‘넘버즈(Numbers)’를 통해 3일 공개됐다. 전국 50명 미만 소형교회 성도 400명과 담임 목사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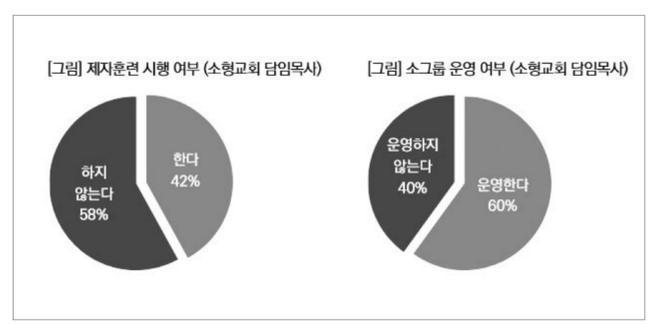
#### ◆소형교회 4곳 중 3곳 “양적 성장 경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무교회의 양적 성장 여부를 묻자,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 8%, ‘기대만큼 성장’ 14%,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성장’ 54%로 나타났다. 전체의 76%가 최근 성장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감소했다’는 24%였다.

#### ◆성장 교회, 소그룹 87%·제자훈련 82%

소형교회 전체를 보면 ‘제자훈련을 시행한다’는 응답은 42%, ‘소그룹을 운영한다’는 응답은 60%였다.

하지만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만 따로 보면 양상이 달랐다. 성장 교회 가운데 소그룹을 운영하는 비율은 87%,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비율은 8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감소 교회에서는 소그룹 미운영 비율이 32%, 제자훈련 미시행 비율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성장하는 소형교회일수록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활성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성도 간 긴밀한 관계 형성과 체계적 양육 시스템이 교회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설교만큼 중요한 ‘비전 공유’와 ‘소그룹’

목회자들이 꼽은 목회 핵심 요소(1~2순위 합산)는 ‘목회 비전·철학 공유’(44%), ‘주일예배 설교’(42%), ‘소그룹 활동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강조돼 온 설교 사역과 함께, 비전 공유와 소그룹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소형교회일수록 ‘철학의 공유’와 ‘관계의 밀도’가 목회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시사한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했다.

#### ◆제자훈련·소그룹, 목회 만족도에 영향

제자훈련과 소그룹 운영 여부는 목회자의 만족도와도 연관성을 보였다. ‘만족

한다’(매우+약간) 응답한 비율은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 64%, 없는 교회 50%로 차이를 보였다. 소그룹 운영 교회 역시 61%로, 미운영 교회(49%)보다 높았다.

다만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전체 목회 만족도는 56%로, 한국교회 전체 평균(64%)보다 8%p 낮았다. 소형교회 상당수가 재정·인력의 한계 속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규모보다 구조”

이번 보고서는 소형교회 성장의 본질을 ‘규모’가 아닌 ‘구조’에서 찾았다.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전략보다,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고 신앙 성숙을 돕는 체계가 마련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소그룹 또는 1:1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세우는 것은 소형교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형교회의 약점을 보완하고, 체계성과 지속성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2027 민족복음화대성회’ 부천본부 출범... “100만 구원 향해”

## 부천 송내어울마당서 발대식·대표본부장 취임예배 개최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이하 본부)가 5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한 부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예배’를 개최하고 지역 조직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발대식, 3부 축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계 인사와 성도들이 참석해 2027년 대성회를 향한 비전을 공유했다.

### ◆형식 아닌 회개... 영적 체질 바꾸는 부흥 대야

1부 예배는 자문위원장 김승민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50대 총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대표기도는 상임본부장 정기복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제3상임회장), 성경봉독은 다문화본부장 서기원 목사(부천공로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했다. 어명선교위임(위임단장 박미향 선교사 외)이 ‘Way Maker’로 찬양을 인도했고, 헌금송은 전주영 찬양선교사, 헌금

기도는 상임본부장 서기원 목사가 맡았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상임회장 조근일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익배 목사, 상임회장 김승리 목사(성수교회)가 각각 나라와 민족, 대성회와 한국교회 회복,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축도는 고문 김창욱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34대 총회장)가 했다.

설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언급하며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적 역사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907년의 회개와 통회, 1977년의 교단을 초월한 연합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며 “2027년 대성회는 단순한 대형 집회가 아니라 민족의 영적 기류와 체

질을 바꾸는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목사는 100만 명의 실질적 영혼 구원을 목표로 제시하며, 결심 이후 교회 정착과 양육, 제자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도, 결심, 정착, 양육, 파송의 선순환 체계가 각 교회에 세워질 때 진정한 부흥이 지속될 수 있다”며 “부천본부가 수도권 복음화의 전초기지이자 다음 세대 부흥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목사는 “철저한 회개와 성령운동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라며 “이제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자.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갖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민족복음화는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뤄질 줄 믿는다”고 역설했다.

### ◆방법보다 순종... 부천을 기도의 심장으로

2부 발대식은 총괄본부장 이경일 목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부천본부 대표본부장으로 취임한 이기도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상 상영 후 이태희 목사가 대표본부장 이기도 목사, 총괄본부장 이경일 목사, 상임여성회장 기사량 목사, 사무총장 김동수 목사에게 각각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상임본부장 성양권 목사가 축기를 불렀다.

대표본부장으로 취임한 이기도 목사는 취임사에서 “오늘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시대에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며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의 출정식”이라고 규정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방법보다 순종을, 전략보다 무릎을 요구하신다”며 회개와 기도, 전도 중심의 운동을 강조했다. 또한 “8천만 민족복음화와 100만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닌 주님의 지상명

령”이라며 “부천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북한과 디아스포라, 열방으로 반져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천본부가 “기도의 심장, 전도의 전초기지,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 ◆교계 인사들 “연합과 눈물의 기도 회복해야”

3부 축하 순서는 이기도 목사의 사회

로 진행됐다. 고문 류철량 목사(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30대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상임대회장 김대성 목사(세계기독교운동본부 총재), 김병호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연수원장), 여성운영대회장 강복열 목사(한국부흥사단총연합 대표총회장), 상임대회장 장사무엘 목사(위대부흥사협의회 총재)가 각각 축사를 했다.

격려사를 한 류철량 목사는 “3류 기업이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2류 기업은 위기가 오면 이기며, 1류 기업은 위기 극복에 발전하고 일어난다고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도 목사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다”며 “혼자는 어렵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는 이기도 목사님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한 김대성 목사는 “위기의 시대일수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고, 강복열 목사는 “부흥은 눈물과 통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내빈 소개와 합심기도는 이기도 목사가, 광고는 사무총장 김동수 목사가 맡았으며, 폐회 및 식사기도는 자문위원장 최중환 목사(부천시소사구기독교총연합회장)가 인도했다. 김진영 기자

##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제18회 서천군 조찬기도회 개최

### 박성규 총신대 총장 “3·1운동, 기독교가 비폭력 독립운동 주도”

서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5일 오전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제18회 서천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정진모 목사(한산제일교회)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김윤석 목사(서천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기도했다. 신경섭 권사(삼동교회)가 성경봉독을 맡았고, 황공주 권사(한신제일교회)가 특송했다. 감사 소개는 김충상 장로(기산교회)가 담당했다.

설교는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이 신명기 32장 7절을 본문으로 ‘기독교와 31운동을 주제로 전했다. 박 총장은 31운동 당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조명했다. 그는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인 19만여 명, 3200여 교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국애족운동을 주도했다”며 “31독립만세운동은 전국 교회가 거점이 됐고, 47개 교회가 파손되거나 불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일교회에서는 35명이 불에 타 순교했다”며 “31운동 피조자의 51%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

에서 기독교인들이 비폭력 독립운동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의 애국애족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안영규 목사(구암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천대욱 목사(문정교회)가 북한 비핵화와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해, 나삼주 장로(기산교회)가 서천군과 군민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김중철 목사(서천경찰서 경무는 치안 확립을, 송기홍 목사(도산교회)는 교육 발전을, 김광덕 목사(큰빛교회)는 서천군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다. 또 견상민 목사(은누리교회)는 성경전래지 기념사업을, 한철희 목사(서천바른인권위원회)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임달재 목사(월기소망교회)는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각각 기도기도했다.

내빈 소개는 박종렬 장로(서천교회)가 맡았으며, 김기웅 서천군수, 김경태 서천군의회 의장, 김영돈 서천경찰서장, 오항균 서천교육장, 진동용 목사(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축사를 전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이 설교하고 있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서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정진모 목사 ©서천성시화운동본부

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했다.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축전을 보내 행사를 축하했다. 광고는 사무국장 최효장 목사(목양교회)가, 축도는 오종설 목사(충남 상임회장)가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롯해 신영호-전익현 충남도의원, 한경식-김원섭 서천군의원, 김강주 전 서천발전협의회장, 조진연 전 서천주민자치위원장, 강성민 전 서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진모 목사는 “서천은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과 김인전 선생의 고향이며, 1919년 3월 29일 마산면 신장리 장날 기독교인 송기면 씨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우국충절의 고장”이라며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한 이번 기도회가 뜻깊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제18회 서천군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 대형 이단 교회 ‘청부 수사’ 의혹... 전·현직 경찰 간부 2명 검찰 송치

### 교회 후계 갈등 수사 청탁 대가로 7억5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의 한 대형 이단 교회 목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 사건 수사를 유도했다는 ‘청부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 B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이단 교회 목사 C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교회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목

사 D씨의 횡령 사건 수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경찰 재직 당시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구로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목사 D씨의 횡령 관련 첩보가 경찰에 접수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첩보는 교회 관계자가 작성한 고발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목사 C씨 측에 전달하며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정보에는 출금금지 여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 과정에서 취급되는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목사 D씨가 실제로 기소된 이후에도 ‘로비 성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목사 D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목사 C씨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최승연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 “소그룹, 교회 친목 모임이 아닌 복음의 통로 돼야”

## 예장합동 전도세미나 개최... 김선일 교수 발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전도세미나가 최근 서울 금천구 신일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교수(사진)는 소그룹 중심 전도의 방향을 제시하며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 즐거운 모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 사회를 “외로움과 단절이 일상화된 시대”로 진단하며, 교회가 성경적 소그룹 전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기본 소식을 나누는 공동체’다. 김 교수는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나병환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아람 군대가 철수한 뒤 남겨진 식량과 물자를 발견한 이들이 그것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성 안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 안에서

만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초대와 환대의 중요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사람들과 교제한 장면을 예로 들며,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예배당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밀한 모임과 식탁은 훨씬 자연스러운 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등산이나 맛집 탐방 등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그룹 활동이 관계 형성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협력’이다. 김 교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려간 복음서의 장면을 언급하며,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 밖에는 우울감이나 번아웃으로 인해 스스로 교회에 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 영혼을 향한 돌봄과 전도는 소그룹 전체가 함께 집울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섬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경만 가정회 위한 돌봄 지원

반찬 나눔, 병행 동행, 이사 도움 등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관계가 형성될 때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도 방법을 소개하는 강의도 이어졌다.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는 ‘파라솔 전도’를 사례로 들며,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

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 원칙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진심 어린 칭찬 건네기 ▲상대의 상황에 공감하기 ▲개인의 신앙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30~40대 소그룹 사역을 주제로 강연한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소그룹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을 때 공동체의 영적 역동성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 제주 ‘홀팸 리프레쉬 캠프’... 사별한 사모들에게 힘과 회복의 시간

### 홀팸선교회 주최·아시아미션 후원... 홀사모와 자녀 35명 참여

목회자 남편과 사별한 사모들에게 힘과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는 ‘제12기 홀팸(홀리패밀리) 리프레쉬 캠프’가 제주에서 진행됐다. 홀팸선교회(대표 양선교 목사)가 주최하고 아시아미션(대표 이상준 선교사)이 후원한 이번 캠프는 최근 3일간 제주 서귀포 컨벤션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목회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모와 자녀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

이번 ‘홀팸 리프레쉬 캠프’는 사역 현장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모들을 위한 멤버케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일상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힘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정이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휴식과 나눔, 메시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녀 속에서 나는 힘과 교류... 홀사모 위한 멤버케어 프로그램 홀팸선교회와 아시아미션은 지난 2013년부터 홀사모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도 숙박과 식사, 이동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원됐다. 참석자들은 제주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 측은 이러한 만남이 참가자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회복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선교 목사는 캠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왔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상실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전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은혜”라며 “이번 시간이 상처를 덮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 “공감과 회복 경험”... 새로운 삶의 힘 얻어 캠프에 참여한 사모들은 공통적으로 ‘공감’과 ‘회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순미 사모는 “사역 이후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었다”며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함께한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제12기 홀팸 리프레쉬 캠프에 참석한 홀사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M

재단화 사모 역시 “오랜 시간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열리게 됐다”며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과 공감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에서 받은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아시아미션, 홀사모 위한 지원 사역 지속 아시아미션은 2026년 사역 방향 가운데 하나로 ‘가족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남편 목회자와 사별한 사모들을 위한 지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주최 측은 “홀팸 리프레쉬 캠프는 남편 목회자와 사별 후 홀로 살아가는 사모들을 위한 멤버케어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홀사모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공동체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미션은 매년 2월 말 제주 컨벤션리조트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홀팸 리프레쉬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안은 아시아미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8회)  
LX Z:in 창호

**LX Z:in**

## 재개발 교회 보상·건축 지원 협력 본격화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TDA종합건설, 5년간 업무협약 체결

도시 재개발로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와 TDA종합건설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TDA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재개발지역 교회 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재개발로 수용되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겪는 보상·설계·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지역 교회들은 토지 보상 협의부터 임시 예배처 확보, 신축 부지 매입,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온 전문 기관이다. 소장 이봉석 목사는 “재개발 이후 성전 건축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개발 교회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축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DA종합건설은 설계·시공·공정 관리 역량을 갖춘 중견 건설사로, 창업 이후 25년간 건설 현장을 운영해 왔다. 대표 손병열은 대형 건설사 출신으로 교회 건축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아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국 1만여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19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약 11% 수준의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지원 없이 자체 자본 중심으로 운영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양측은 앞으로 ▲재개발 보상 상담 및 건축 전 단계 컨설팅 ▲건축 법규 및 규모 검토 ▲기본 설계 제안 ▲기술 자문 및 연구 협력 ▲실무 협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이나 공정 관리 미흡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고, 컨설팅과 시공 역량을 결합한 교회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지역 교회 지원 사례를 축적하고, 관련 컨설팅과 건축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 구세군 ‘나눔ON 캠페인’ 2차 e-바자회 성료

도시 재개발로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와 TDA종합건설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TDA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재개발지역 교회 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재개발로 수용되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겪는 보상·설계·시공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지역 교회들은 토지 보상

협일부터 임시 예배처 확보, 신축 부지 매입,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해 온 전문 기관이다. 소장 이봉석 목사는 “재개발 이후 성전 건축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개발 교회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축

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재개발 보상 상담 및 건축 전 단계 컨설팅 ▲건축 법규 및 규모 검토 ▲기본 설계 제안 ▲기술 자문 및 연구 협력 ▲실무 협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이나 공정 관리 미흡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고, 컨설팅과 시공 역량을 결합한 교회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 지역 교회 지원 사례를 축적하고, 관련 컨설팅과 건축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 ANC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아름다운 제자들' 말씀집회 개최

##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초청 집회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아름다운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집회를 열었다.

30주년에 부쳐, 김태형 목사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은 실수 없이, 변함없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며, "19세기 미 서부를 향해 미개척지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정과 관계, 세대간 이어져야 할 유산, 모든 것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선교지이다"라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 날인 3월 1일 주일예배에서 김태형 목사는 이란 전경을 언급하며, "그곳에 부흥이 필요하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유진소 목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마태복음 5장 13-16절)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 '국제시장' 속 아버지의 '한 마디'  
그는 2016년 ANC 20주년 사역을 마친 후, 부산으로 부임했던 때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부임 직후 영화 '국제시장' 촬영지였던 국제시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 영화 속, 흥남부두에서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한마디, "이제는 내가 가장이다"가 이 영화를 끌어안고 모티브였다고 설명했다.

"이 한마디는 주인공 덕수로 하여금 격동의 세

월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책임지게 했다. 무거운 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불드는 축복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유 목사는 국제시장 속의 이 '한 마디'처럼, "진정한 권위로부터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언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정체성은 존재가 아니라 기능"  
유진소 목사는, 이 본문에서, '소금'이나 '빛'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기능'에 초점이 있다며, "소금은 짠맛이라는 기능으로, 빛은 비추는 기능으로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예수께서 단순히 소금과 빛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점을 짚었다. 그는 "주님은 결코 성도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으신다"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금은 '땅(계)'에, 빛은 '세상(코스모스)'에 비유된 점을 설명하며 "어떤 이는 낮은 자리에서,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다.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주목받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소금의 세 가지 기능  
그는 소금의 기능과 빛의 기능을 설명했다. 첫째, 정화시킨다. 그는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

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며 "그럴 때 세상에 자제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둘째, 의미를 부여한다. 본문의 "맛을 잃는다"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모라이노(moraino)'는 '어리석다'는 뜻을 가진다. 즉, 의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신앙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주변을 살아나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 안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명 카피라이터 이만재 작가의 책 '막대한 전향'에 소개된 일화를 나누었다.

"이만재 씨가 전도를 받아 다락방 모임을 참석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주만 먹고도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다."

◆빛의 두 가지 기능, "열방보다 안방"  
이어 빛의 기능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어둠을 몰아낸다. 그리스도인은 우울과 절망, 낙심을 거부하고 십자가 붙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다. 삶이 힘들고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빛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고난과 실패, 좌절조차 아름다움으로 빛어낸다. 산 위의 동네가 아름다운 것은 각 집의 불빛 때문이다. 그 불빛은 멀리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켜는 것이다. 열방보다 안방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김태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유진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 ©교회 측 제공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셨다"며 "비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교를 마치며 "특별히 삶이 힘들 때, 낙심하고 싶은 순간에 이 말씀을 잊지 마라. 내가 소금이야,

내가 빛이다라고 기억하라"고 격려했다. ANC온누리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제자,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날 집회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성도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주디 한 기자

# 나성영락교회 53주년 "교회의 본질은 사랑, 그 시작은 무조건적인 용서"

## 예장통합 총회장 정훈 목사 초청, 창립 53주년 봄 말씀 집회 "사랑의 능력"

나성영락교회 창립 53주년 봄 말씀집회에서 정훈 목사는 2월 27일 "기적의 조건"(수 5:13-15), 28일(토) 오전 "멋진 교회"(행 6:1-7), 오후 "행복의 비결"(살전 5:16-18), 3월 1일(주일) "사랑입니다"(요한복음 13:34-35)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했다.

집회 마지막 날인 3월 1일 나성영락교회 단상에 오른 정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며, 회복의 길을 제시했다.

"우리 교단(예장통합)은 한때 성도 수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250만 명으로 줄었다. 150만 명이 감소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술담배보다 무서운 죄는 형제를 향한 미움"  
정 목사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덕(德)의 차원에



창립 53주년을 맞은 나성영락교회 봄 말씀집회에서 정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가 '사랑의 능력'을 주제로 집회를 이끌었다. ©나성영락교회

서 금기시해온 술담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무서운 죄는 '미움'이라고 역설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한다. 술담배는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금지된 것이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살인죄와 같다. 사랑

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살인죄를 지는 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성도들이 서로의 미움-싸움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예배드리는 현실에 탄식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규율을 지켰음에도 예수님께서 불평을 행하는 자라 책망받았던 이유 역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신약에서 십계명은 "이웃 사랑" 한 계명으로 압축되었으며, 이웃 사랑이 없으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용서, 상대의 회개가 아닌 나의 '일방적 결단'  
특히 정 목사는 이번 총회의 표어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소개하며 용서는 상대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 자식처럼 490

번 용서해도 역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했다.

"탕자를 용서하며,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대신에 너 그 돈 어떻게 썼?' 이럴 만한테 안 물어본다. '아들아, 내가 너 용서해 줄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럴 만한테 아무런 조건도 없다. 용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유일하게 열 번을 용서해도 역을하지 않고 100번을 잡아 저도 역을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자식이다.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데도, 그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용서해주신다."

◆나성영락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권면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지난 몇 년간 갈등과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그는 "나성영락교회는 해외 한인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로서 평안하고 부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먼저 용서하고 안이주어, 오늘을 기점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 “감사의 종류를 통하여 깨닫는 축복의 삶”



이훈구 장로가 강연하고 있다. ©주최측 제공

## 이훈구 장로 특별 강연회 개최

G2G 선교회 대표 이훈구 장로가 지난 1일 텍사스 남부 맥알렌 한인교회(담임 권영배 목사)에서 '감사의 종류를 통하여 깨닫는 축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감사나눔 공동체의 감사나눔 리더(임원)로 활동 중인 이훈구 장로는 감사와 행복,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한 세미나 자료와 간증을 엮어 약 1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이 장로는 감사의 종류와 감사 표현의

유형, 감사를 해야 할 이유,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각 주제마다 실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강연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지루할 틈 없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장로는 “감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상대방에게 하는 감사, 자신에게 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 주는 '자신에 대한 감사'를 잘 실천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

였다. 이어 이 장로는 『감사나눔의 기적』에 소개된 감사 7진법(무소코마즉모사)을 소개했다.

이 장로는 무조건 감사하라, 소리 내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하라,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되는 방법과 1530 감사나눔 실천을 통해 행복으로 초대되는 삶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감사

와 행복, 그리고 축복으로 초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이훈구 장로는 자신이 집필한 세 번째 책 『감사와 행복으로의 초대』 40권을 맥알렌 한글학교에 기증하였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이 책을 구입할 경우 그 금액은 한글학교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는 7일 저녁 8시(미국 센트럴 시간 기준)에는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이훈구 장로를 초청하여 온라인 줌 화상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들람 온라인 공동

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창립된 공동체이다. 건물도, 담임목사도 없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정해진 예배 장소에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이 모여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이훈구 장로의 감사·행복·축복 강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들람 온라인 예배 참여 줌 아이디는 87 01234 252이며,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강연 문의 : g2mission.com 김민선 기자

#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 확장”

## 텔로유스 B.A.M 성공사례 발표회 열려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텔로유스 바이오텍 본사(캘리포니아 부에나비스타)에서 B.A.M(Business As Mission) 성공 사례 발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KINGDOM ENTREPRENEUR -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를 주제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적 사명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폴 김 디렉터와 버나드 정 대표의 비전 메시지, 그리고 두 명의 간증 발표가 이어졌다.

폴 김 디렉터는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비즈니스의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야 한다”며 “비즈니스는 사명이고, 사명은 영향력이며,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제 분열을 멈추고 교파를 떠나 하나 되어야 할 때”라며 “세대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즈니스 선교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을 투자해 내일의 리더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폴 김 디렉터는 텔로유스 B.A.M의 핵심 가치로 정체성, 창업가 정신, 영향력, 끌리는 힘, 이기는 자의 삶을 제시하며 “킹덤 오버커머로서 믿는 자들은 이미 이기는 자”라고 말했다. 그는 “텔로 바이오텍이 플랫폼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라도 복음을 전하길 기도한다”며 “성공과 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



행사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과”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비즈니스, 코치 양성 시스템, 차세대 리더십 교육을 포함한 B.A.M 모델을 소개하며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며, 가족을 만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버나드 정 대표는 가문의 의료 배경을 소개하며 “의사의 길 대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오펜지카운티에서 아동 사역을 하며 가정과 정서적 상처 문제를 목격한 경험을 나누고 “예수님이 치유와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의 꿈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세대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 되는 전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비전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포 신호(Cell Signaling) 기반 기술력과 코치 양성 시스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선교 후원을 100% 매칭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선교가 함께 가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증자로 나선 김재중 장로(신경과 전문의)는 “2005년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재발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PSA 수치가 400이 넘었으나 치료와 함께 텔로유스를 병행하며 두 달 만에 200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1.5와 0.8까지 낮아졌다”고 간증했다. 또한 황반변성 증상도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조한웅(56) 성가사는 “당뇨 수치가 500에 달해 언제 심장마비와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텔로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가 크게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40-50대뿐 아니라 60-70대 이상까지 적용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며,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품 설명을 넘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와 차세대 리더 양성, 그리고 실제 건강 회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마스 멩 기자

# 굿네이버스, 조수아 초청 ‘나눔 찬양 콘서트’ 조지아 지역 순회 개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이자 찬양사역자인 조수아 집사를 초청해 조지아 지역에서 ‘나눔 찬양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 콘서트는 해외 아동결연 캠페인을 알리고, 지역 교회 및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지아 지역 콘서트는 3월 8일(주일) 오후 1시 아틀란타 샘물장로교회(함종형 목사), 3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에렌스 한인장로교회(정순재 목사), 3월 15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특별순서 뉴난한

인교회(남성원 목사), 3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뉴난산통교회(김학수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조수아 집사는 2001년 1집 앨범 ‘Grace’로 데뷔한 이후 다수의 찬양 앨범과 프로젝트 앨범을 발표하며 활발히 사역해 왔다. 2009년부터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2012년 국민일보 선정 ‘올해의 여자가수’에 선정된 바 있다. CBS 라디오 ‘조수아와 함께하는 큐티찬양’, CGNTV ‘조수아와 꽃들의 멜로디’ 등을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조수아’s Hymns 100’ 음반을 발매했다. 대표곡으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야 일 하시네’, ‘영령이 오셨

네’, ‘부르신 곳에서’, ‘말씀하시면 이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로, 현재 전 세계 48개국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월 35달러로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미주 지역에서 홍보대사들의 재능기부 콘서트를 진행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아동결연 신청 및 콘서트 관련 문의는 877-499-9898(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PST) 또는 이메일(info@goodneighbors.us)로 가능하다. 앤더슨 김 기자

# 제1회 AI설교연구소 컨퍼런스 오는 3월 10일 개최

##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CPU, 총장 이상명)가 ‘AI 설교 연구소 (AI Preaching Institute)’를 공식 출범하고, 오는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컨퍼런스는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이고 점수가 제공된다.

현장 참석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며, 이후 신청자에게는 온라인 중계 링크

가 제공된다. 이날 컨퍼런스는 공동대표인 송병주 목사의 개회예배 및 환영사에 이어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창환 학장(풀러신학교, 공공신학, 공적교회, 지혜문헌 전공)이 세션 1: 설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혜서 연구, Elliot Chung과 Jay Wu(One Life City Church)가 세션 2: 지역사회를 섬기는 설교와 영적형성 사례(영어-한국어 통역)를 이끈다.

오후에는 조요셀 박사(ILC Lab, UBF CEO)가 세션 3: 설교자를 위한 AI 기초와 귀납적 성경연구 AI 소개, 이세영 소장(AI 설교연구소 소장)이 세션 4: AI

for Social Good and Serving God을 이끈다. 세션 후에는 Q&A 및 패널 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이 컨퍼런스 이후에는 ‘청년 사역자 설교 멘토링(4월)’, ‘설교 영상 제작과 AI(5월)’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AI설교연구소, CPU가 주최하고, GBC미주복음방송이 협력하며, 릴리제단이 후원한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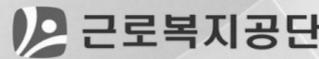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인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이용한 이사장 취임

4일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3대, 제4대 이사장 이·취임식 열어

(사)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제4대 이사장으로 이용한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KSEF) 회장이 취임했다.



이용한  
신임 이사장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비스타블루 연회장에서 열린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3대, 제4대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이용한 신임 이사장은 “요즘 K팝, K푸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의 역대 이사장님들과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써온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한글을 소개하기 위해 10개 언어로 동시 번역이 가능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최대한 알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려 각 나라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더 나아가 국제평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와 함께 “조직 인선

은 전 임원이 실무형으로, 문화원이 발전하는 인선을 할 것”이라며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용한 신임 이사장은 과거 보수 정권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세 차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두 차례 역임했고,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이사로 7년간 활동했다. 현재 전국 105개 업종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KSEF의 회장이며, 정적정의정도를 핵심 가치로 삼아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JB포럼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업무보고에 이어 조형구 직전 이사장(3대 이사장)이 이용한 신임 이사장에게 단체기를 전달하고, 이용한 신임 이사장이 조형구 직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형구 직전 이사장(세계직장선교회 ICT 정보단장)은 이임사에서 “그간 3대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하는 중에 무엇보다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크게 자리했다”며 “재임 기간 우리 문화원이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곳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다. 동아시아의 넓은 틀 안에서 교육적 성취와 문화적 교류는 저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낮은 곳과 연결이 필요한 곳에 작은 힘을 보태며, 우리가 함께 가꾸어온 가치들을 잊지 않겠다”며 “부족한 저와 함께해주시는 모든 회원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이 앞으로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용한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손영철 JB포럼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다. 손영철 상임대표는 “조형구 이사장님께서 지난 시간 인건, 보령, 제주를 잇는 귀족라프 K한글문화운동을 주

도하셨고, 미주 한인 입양인과 감자심기, 국제푸드테라피협회와 협약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교육·문화의 활발한 역할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 “오늘 취임하시는 이용한 이사장님은 JB포럼 운영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 오셨던 분”이라며 “그 경험과 리더십이 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가 되어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로 서고, 문화원이 그 사명을 이루는 교육과 문화의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한국동아시아교육문화원은 2017년 창립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과 문화 교류,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 KWMA, 중동 선교사 및 중동 평화 위한 긴급 기도 요청

중동지역한인선교협의회 등 현지서 기도 제목 보내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긴장과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현지에서 중동 지역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5일 중동지역한인선교협의회(중선협)는 이란 거주 한인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인들, 일부 대기업 및 회사 주재원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 피신하고, 코카스 등 정부 파견 인력들은 한국으로 일시 철수를 시킨 상황에서 전한 후 “모두가 대피하는 혼란과 위험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선교사들이 있다”며 “중동 전역에 남겨진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긴급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현지 소식통도 “이곳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간의 다툼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중동 땅의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간구하는 77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전했다. 그는 먼저 “①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이 평화의 길을 찾아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그치도록, 또 ②이란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③헤즈볼라가 무기를 내려놓고 나라의 권위에 순복하며, 레바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기도록, ④또 큰 싸움을 하려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다툼 없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서로 살길을 찾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영적 회복이 임하길 간구하는 기도도 담았다. 현지 소식통은 “⑤이 싸움으로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을 잃은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⑥이 다툼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모든 무슬림에게 흘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아울러 “⑦이 어려움에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고,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 4/14윈도우한국연합, 다음세대 살릴 ‘제1기 스토리텔링 교사아카데미’ 개강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 줌 강의

4/14윈도우한국연합(대표회장 장순홍, 상임대표 허중학)이 다음세대를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기 위해 ‘제1기 스토리텔링 교사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할렐루야교회와 어린이전도협회, 원호프한국(OneHope Korea)이 후원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교회학교 교사, 사역자, 부모, 선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글로벌 어린이 사역 단체인 원호프가 세계 각국의 만 6-12

세 아이들에게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과정으로 보급해 온 ‘17가지의 이야기(17 Stories)’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교육한다.

‘17 Stories’는 구약 8가지, 신약 8가지 등 16가지 성경 이야기와 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God’s Big Story)’를 더해 총 17가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매 수업은 찬양과 경배, 스토리텔링 말씀 공부, 적용, 서로 나누기, 기도, 축복받기 등으로 진행된다.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때는 이야기와 관련된 작은 그림 카드 1장을 제공한다.

전 과정을 마치면 16장의 그림 카드가 주어지는데, 이를 연대기 순서에 따라 바닥에 4열 4행으로 배열한 후 1장씩 뒤집으면 큰 그림 1장이 나타나며, 이는 곧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림이 된다. 아이들이 이미 배운 16가지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

부를 깨닫고, 창조주께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경 전체를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번 교사아카데미에서는 교회학교 설교, 성경공부, 지역 모임, 계절별 성경학교, 기독교영성 훈련, 선교지 아이들 훈련 등에서 성경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적용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14윈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인 장순홍 부산외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온 ‘17 Stories’를 활용해 교사 여러분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성경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번 교사아카데미 참여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전했다.

교육 과정은 무료(교재 발송비 1만 원 별도)로 진행하며, 17가지 이야기 훈련 교재(리더 지침서 및 학생용 그림 카드)와 각종 다음세대 전도 양육 자료 및 정 보도 무료로 제공된다. 이지희 기자

# “중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정주국제학교, 2026학년도 봄학기 개학

3일 봄학기 개학식 및 장학금 수여식 진행

중국 하난성 정주시에 있는 정주국제학교 교이사장대표 이후진, 교장 이수아가 3일 소강당에서 2026학년도 봄학기 개학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각자 자리에서 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봄학기에는 총 2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학교 공동체에 활력을 더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위해 한국어 담임교사와 중국인 부담임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담임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학식에서는 학생들의 노력과 성



이후진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정주국제학교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다.

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및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은찬 학생은 입학 1년 만에 HSK 5급 219점을 취득하는 뛰어난 성과를 이뤄, 자기도전 성취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훈 학생을 비롯한 4명의 학생에게도 학업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며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신예민 학생을 포함한 12명의 학생에게는 방학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로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레벨테스트와 HSK 취득 등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재학생과 신입생들에게

도 성적우수상 및 진보상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직원 소개와 학년별 학생 소개, 장학금 및 표창 수여, 이수아 교장의 훈화 말씀으로 마무리됐다.

정주국제학교 한국부는 2008년 ‘중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신념으로 설립된 이래,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넓은 시야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졸업생 전원이 중국 명문대와 한국 주요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한중 교육을 통한 민간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과 유학 생활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큰 꿈을 품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p><b>비영리법인</b></p> <p><b>비영리단체</b></p> <p><b>교회, 목회자세금신고</b></p> <p><b>법인세, 소득세</b></p>	<p><b>부가가치세</b></p> <p><b>상속세, 증여세</b></p> <p><b>양도소득세</b></p>	<p>고문세무사 <b>차삼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5개 세무서근무</li> <li>•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li> <li>•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li> <li>•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li> <li>•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li> <li>• 종로,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li> </ul>	<p>세무사 <b>송선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li> <li>• 서울대학교 졸업</li> <li>• 한국세무사회고시회 이사</li> <li>• 국제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li> <li>• 서울시 마을세무사</li> <li>• 국제청 국제심사위원회</li> </ul>
--	--	--	--

세무사 **송선호**

세무상담 **02-3295-3300**

# 이란 기독교 네트워크, 하메네이 사망 환영

## 예루살렘 대주교·교황은 “폭력 중단과 대화” 촉구

이란 기독교인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감행한 공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기쁘다”고 밝히며, 그가 “테러 정권을 이끌었고 수많은 시위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 내 봉기에 대한

잔혹한 진압을 직접 지휘한 책임자”라며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국외로 탈출을 강요받았고, 일부는 여전히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고 이란 재건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가 이란 국민에게 항복하고, 해외에 망명 중인 이란인들—특히 레자 팔라비를 포함한 디아스포라 인사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며, 권력이 평화롭게 이양돼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민주정부가 수립되

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란의 영토가 유지되는 체제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심 나움 예루살렘 대주교는 보다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비극적으로도 폭력의 악순환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움 대주교는 이란과 군사 행동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을 위해 “긴급하고도 끊임없는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과 그에 따른 ‘격렬한 보복’의 교차 속에 놓인 무고한

아들—어머니와 아이들, 노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지도자들이 ‘건전한 마음’을 갖고 이 유혈 사태의 무의미함을 깨달아 세계적 재앙의 벼랑 끝에서 물러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황 레오 14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격동의 시기에 중동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며 “안정과 평화는 상호 위협이나 무기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파괴와 고통, 죽음을 초래하는 폭력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진실하며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Sina Drakhshani/ Unsplash.com

## ‘조용한 부흥’ 논란 속 교회 출석 조사 재실시… 영 기독교 증가 여부 재검증

영국에서 이른바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올해 말 교회 출석 관련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논쟁적인 종교 통계 중 하나로 꼽히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4월 바이블 소사이어티(Bible Society)가 발표한 ‘The Quiet Revival(조용한 부흥)’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유고브의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토대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히고 매달 한 차례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이 2018년 8%에서 2024년 12%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8-24세 청년층의 경우 같은 기간 4%에서 16%로 급증했으며, 이 연령대 남성의 5분의 1 이상이 매달 교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같은 연령대 여성도 4%에서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18-24세 청년 중 약 3분의 1은 친구의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4분의 1은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응답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공동 저자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리애넌 맥알리어 박사는 당시 “매우 인상적인 결과”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회가 구조적 쇠퇴에 접어들었다는 기존 가정을 뒤집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교계 지도자들의 환영과 함께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보수당 소속 대니 크루거 하원의원은 이를 의회에서 인용하며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와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론이 제기됐다. 장기 추세 데이터와 상충한다

는 지적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명예 사회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보아스(David Voas)는 “이 정도의 성장이 사실이라면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신규 교인이 생겼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도 “통계적 증거는 명확하다. 교회 출석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자들은 특히 내셔널 센터 포 소셜 리서치(NatCen)가 실시하는 영국 사회태도조사(BSA)를 근거로 든다. 무작위 확률 표본 방식을 사용하는 이 조사는 ‘골드 스탠더드’로 평가받는다.

최근 BSA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히고 매달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의 비율은 2018년 12%에서 2024년 9%로 감소했다. 청년층 월간 출석률 역시 6-7%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Cen의 수석 연구원인 존 커티스 경은 BBC 인터뷰에서 “연속적이고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에 더 신뢰를 둔다”며 유고브 수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적 관심도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영국 기독교 부흥 보도가 충분히 강력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퓨는 특히 ‘오픈인’ 온라인 설문 무작위 표본 가구조사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퓨 분석에 따르면 영국 노동력조사 자료에서 성인 기독교인 비율은 2018년 54%에서 2025년 여 44%로 하락했다. 18-34세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18년 37%에서 28% 미만으로 감소했다. 퓨의 선임 인구통계학자 콘래드 해지 박사는 BBC에 “부흥이라는 반복적 주장은 매우 오해를 낳는 서사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pixabay

인본주의 단체 휴머니스트 UK는 ‘The Quiet Revival(조용한 부흥)’ 보고서의 철학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성서공회(Bible Society)는 연구 결과를 고수하고 있다.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고품질 유고브 조사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유고브 역시 자체 패널 운영, 신원 확인, 기기 지문 추적, 위치정보 도구 등을 통해 부정 응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흥론 지지자들은 2025년 성경 판매가 급증했다는 업계 자료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기독교 출판사 그룹 SPCK 그룹은 올해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보고했다. SPCK 출판 디렉터 로린 윌슨은 “모든 것을 가진 세대가 더 진실하고 일관되며 평화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알파코스 창립자인 나기 검블과 호프 투게데(Hope Together)의 레이철 조단-울프 등 교계 지도자들도 청년층의 영적 관심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고브가 올해 말 동일 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조용한 부흥’이 실제 현상인지에 대해 교계와 학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경 기자

## 미·이스라엘 공습 여파 확산… “중동 기독교 공동체 생존 위기” 경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와 정권 핵심 인사들이 사망한 가운데, 이어지는 폭력 사태가 이미 취약한 중동 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은 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ACN 국제 총재 레지나 린치는 “새로운 폭력의 악순환은 이미 생존의 기로에 선 공동체를 한계 너머로 밀어낼 수 있다”며 현지 팀들로부터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린치는 “이 지역 민중이 자유와 존엄을 갈망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전쟁이 재개될 경우 그 대가는 극히 높을 것이며, 민간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기독교인들은 종종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또 “과교가 다시 확산된다면 이 공동체들이 이를 견뎌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많은 기독교인이 이주했으며, 전쟁이 재개되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남아 있는 이들 대부분은 고향 자이거나 빈곤층으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ACN은 특히 이란 내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들이 공식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현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국제 감시단체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이란은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 10위에 올라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수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 이후 재건을 시작한 이라크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4년 내전 끝에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이후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의 미래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

적했다. 린치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중동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존재와 교회의 사명은 계속돼야 한다”며 기도와 연대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내 군사 및 정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와 고위 관리들이 사망했으며,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일 한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도시 베이트 셰샤에 떨어져 9명이 숨졌다. 또한 쿠웨이트의 한 민간 항공기 내 작전센터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최소 6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해 말 경제난과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휩싸였고, 이후 강경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 디아나 엘타하위는 “수십 년간의 억압에 분노를 표출하고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 이란 시민들이 또다시 불법적 발표와 체포, 구타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 최고안보 회의에 대해 보안군의 불법적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라크계 기독교 구호단체 트랜스포름 이란(Transform Iran)의 대표 라나 실크는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공격이 “피할 수 없었고, 슬프지만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실크는 “누구도 생명의 희생을 원하지 않지만, 이미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었다”며 “이란 국민은 47년간 체계적 폭력 아래 고통받아 왔고, 최근 몇 주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의성군**

#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 의성

## 에서 만들어갑니다.

# 스페인 의회 외교위원회, 박해받는 기독교인 보호 강화 결의안 승인

## 기독교 박해 대응 위한 정책 강화 논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페인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회(Congress of Deputies) 외교위원회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 박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박해받는 기독교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승인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스페인 보수 정당인 국민당(Popular Party)이 제안한 것으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하는 폭력과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이번 initiative는 종교 자유 보호와 국제 인권 문제 대응을 주요 목표로 하며, 특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과 박해 문제를 스페인 외교 정책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스페인 정치권 내에서 종교 자유와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중요한 국제 의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 ◆종교 자유는 민주주의의 지표... 국민당 의원 제안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당 소속 마리벨 산체스(Maribel Sánchez) 의원은 제안 설명 과정에서 종교 자유가 특정 종교

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산체스 의원은 "종교 자유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라고 언급하며, 종교 자유가 존중되는지 여부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현재 전 세계 현실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통계... 3억8천만 명 영향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 2026'는 약 3억8,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높은 수준 또는 극심한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겪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체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의 확대와 각종 무력 충돌, 전쟁 등이 종교 자유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벨 산체스(Maribel Sánchez) 의원이 2026년 1월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Spanish Congress YouTube

### ◆의회 내 격론... 정당 간 의견 갈려

CDI는 해당 결의안은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며 정치권 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PSOE 측은 대표해 발언한 마리아 돌로레스 코루호(María Dolores Corujo) 의원은 국민당이 제출한 proposal을 강하게 비판했다.

코루호 의원은 국민당이 종교 박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적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당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슬림 공동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proposal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좌익 연합 수마르(Sumar) 소속 아구스틴 산토스 마라베르(Agustín Santos Maraver) 의원도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형태의 종교 박해와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산토스 의원은 스페인이 국제사회에서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권리가 제한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취업 기회, 교육 접근, 사법 시스템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

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탈루냐 좌파 정당인 에스케라 공화당(Esquerra Republicana)의 조르디 살바도르(Jordi Salvador) 의원은 해당 proposal에 찬성했다.

살바도르 의원은 어떤 종교나 문화도 차별받아야 하는 안 된다며 모든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2등급 신앙이나 감정,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극우 정당 폭스(Vox) 역시 해당 initiative에 지지를 표명했다. 폭스 소속 알베르토 아사르타(Alberto Asarta) 의원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납치, 성폭력,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보이지 않는 박해 문제 제기

CDI는 이번 결의안은 기독교인에 대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별 문제에 함께 지적했다. 오픈도어 스페인 지부의 테드 블레이크(Ted Blake)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종교 박해가 항상 공개적인 폭력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항상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권리가 제한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취업 기회, 교육 접근, 사법 시스템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차별로 이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사실상 2등 시민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스페인 외교 정책 변화 가능성  
외교위원회가 승인한 이번 결의안은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종교 박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력과 인권 기준을 외교 정책에 연계해 종교 자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제안은 종교 자유 보호가 경제 이주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은 의회 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결의안은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으며 18명의 의원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종교 자유와 기독교 박해 문제를 스페인 정치 의제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국제 가톨릭 단체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가 발표한 2025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54억 명이 종교 자유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연 기자

# 나이지리아 기독교 학살 사건... 풀라니 목동 9명 재판, 국제사회 압박 속 수사 확대

## 미국·국제사회 주목 속 '예르와타 학살 사건' 재판 시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베누에주 예르와타(Yelwata)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해 풀라니(Fulani) 목동 지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희생된 대규모 공격과 관련된 드문 기소 사례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가 나이지리아의 종교 박해 문제 대응을 위한 양자 협정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 라왈 모하메드 도노(Ardo Lawal Mohammed Dono) (사진)를 포함한 9명이 테러 관련 혐의 등 총 5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베누에주 구마(Guma) 지역 예르와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며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 ◆"자금 모금무장 공격 조직"... 테러 지원 혐의 적용

현지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예르와타 공격을 위해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고 공격 조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노는 테러 행위를 지시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프리미엄 타임스(Premium Times)는 도노가 다른 피고인 중 한 명인 무하마

두 사이두 아르도(Muhammadu Saidu Ardo)에게서 자금을 모아 공격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다른 피고인 하룬나 압둘라히(Haruna Abdullahi)가 풀라니 지도자의 거주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공격 계획을 논의했으며, 공격에 사용할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나사라와, 과라, 타라바 등 여러 지역에서 무장 인원을 모집하고 공격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은 AK-47 소총을 포함한 무기를 준비하고 공격대 파견을 조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사건이 2022년 제정된 테러방지법과 총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예르와타 기독교 학살 사건... 수백 명 희생

CDI는 예르와타 공격이 지난 2025년 6월 13일 밤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인권 단체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 와이드(CSW)는 무장 공격자들이 처음에는 국내 실용성 400여 명이 머물던 선교 시설을 공격했지만 군 병력에 의해 저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공격자들은 예르와타 중앙시장으로 이동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공격했다. 보고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들은 집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숨졌으며 시신 훼손 사례도 확인됐다.

공격 당시 가해자들은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공격은 사건 발생 전 수일 동안 이어진 테러 폭력 이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집단 매장에서 약 105구의 시신을 발굴해 법의학 분석을 진행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농민과 목동 간 충돌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미국 의회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 대응 필요"

CDI는 이번 재판은 미국 정부가 나이지리아와 종교 박해 대응을 위한 양자 협정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라일리 무어(Riley Moore) 의원 등이 참여한 보고서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풀라니 무장 세력의 무장 해제, 강제로 점유된 농지에서 목동 세력 철수, 보안군의 공격 대응 강화, 북부 지역의 샤리아 법 폐지 등의 조치가 제안됐다.

또 미국 정부가 제재, 외교 압박, 비자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기독교 박해 통계... 전 세계 희생자

의 72%가 나이지리아

국제 기독교 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의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가운데 3,49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체 희생자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가 기독교인 이 신앙 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가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보코 하람(Boko Haram)과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ISWAP) 등도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풀라니 무장 세력 역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말라에서 시작된 알카에다 연계 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무장 세력 '라쿠라와(Lakurawa)'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연 기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 SMI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 트럼프 “이란 핵무기 용납 못한다”... 미·이스라엘 공습 속 美무기 비축량 자신감

### 트럼프 “핵무기 가진 광기는 재앙”... 이란 공습 정당성 강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군사 작전의 배경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을 공격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그때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거 동맹 관계에 있던 국가들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운 국가였다”며 “우리가 시간을 더 끌었다면 그 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발언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대해 “오늘 북한과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앞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무기 비축량 논란... 백악관 “전쟁 장기화에도 충분”

한편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군수물자 비축량이 전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국이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수품과 탄약, 무기 비축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맹렬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장소에 추가 무기 비축량이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 자산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방산업계에 무기 생산 속도 높일 것 요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산업체들에 신속한 무기 생산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방산업계가 생산 속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군수 생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초기부터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며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한 모습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탄약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중급 및 중상급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이 물자만으로도 전쟁을 매우 성공적으로 오랜 기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란 권력 승계 상황 주시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이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레빗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 확인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4일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 내 민중 봉기를 촉발하기 위해 쿠르드족 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핵협상 결렬이 군사 충돌 배경으로

백악관은 이번 군사 행동의 배경으로 이란과의 핵 협상 결렬을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 해제와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무상

핵연료 제공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요구했던 우라늄 농축 능력의 영구 포기를 이란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치명적인 판단 오류로 드러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할 때 그는 허풍을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은혜 기자

## 쿠르드족 이란 지상 공격 보도 확산

### 이란 북서부 지상 작전 가능성 제기... 이란-쿠르드 단체는 부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쿠르드족 세력이 이란 북서부에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와 일부 쿠르드 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어 실제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 이란 북서부로 진압해 작전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에 대해 각국 정부와 쿠르드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현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쿠르드 전투원 이란 진입” 보도... 미국-이스라엘 지원 의혹

미국 폭스뉴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라크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들어가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이라크계 쿠르드 민병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전투원은 그동안 이라크에 머물다가 이번 공세

를 계기로 이란 북서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도 쿠르드 전투원 수백 명이 이라크 국경 인근에서 이란 내부로 이동해 지상 작전에 나섰다”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CNN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내 봉기를 촉발하기 위해 쿠르드 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과 쿠르드 단체 “지상 공격 사실 아니다” 반박

이란 정부와 일부 쿠르드 단체들은 이러한 지상 공격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란 반군영 매체 타스님통신은 국경 지역 취재진을 인용해 무장 쿠르드 세력

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라크혁명수비대(IRGC) 역시 해당 보도가 이란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관계자도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한 이라크 쿠르드 병력은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속 다시 부각되는 쿠르드 문제

쿠르드족은 이란과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경 지역에 분포해 있는 민족으로 독립 국가 없이 여러 국가에 나눠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독립 국가 설립이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 충돌을 겪어 왔다. 특히 이란 서부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 북부 국경 지대에서는 쿠르드 무장 세력과 이란 보안군 사이의 충돌이 반복돼 왔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서 쿠르드 문제와 쿠르드 민병대의 역할이 다시 중동 정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은혜 기자

## 민주당 “美관세 압박·중동 위기 대비”... 기업 지원 필요성 강조

###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수출-에너지 불확실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동 정세 불안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위한 추가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 감소와 에너지 공급 불안, 물류비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세계 간담회에서 “시장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확산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와 함께 약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긴장 고조...에너지·물류 부담 가능성 제기

간담회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우려로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한국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안도겸 의원도 원

유의 약 7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만큼 해협 통과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역시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에너지와 해운 산업뿐 아니라 대중동 수출과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르무즈해협 상황 공유...반도체 산업 영향 우려

중동 상황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중동 정세 악화로 물류비와 운송비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 있으며 가운데 일부 유조선은 각각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가 상승에 대비한 자원과 환급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하며 정부 비축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구...반도체 자동차 산업 영향 우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열린 이란 사태 관련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외교부 당 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이 특정 품목에 선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산업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통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도 현재 상황을 “복합적인 경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통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 보호와 통상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나래 기자

救急胃腸藥

# 活命水

수 명 활

본국인정인 활명수  
반도체의 인기종전 수경정민승용양선수우승축하  
건조한 체력 건기를 불타는 내구력의 근원인 오직 건전한 위장에서 배태된다  
건조한 조식을 목표로 하고 다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꼭(꼭)드시라

牛島男兒의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는耐久力에根源은 오직健全한胃腸에서 胚胎된다 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 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여

活命수를 服用합시다

地帶五町泉和原城京 房藥和同 社發

九一七二光新通

##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본질”

이춘성 박사, 생성형 AI가 바꾼 노동 구조 속 '내적·외적 소명' 재조명

이춘성 박사(한기운 선임연구위원)가 최근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원장 신원하, 이하 한기운) 홈페이지에 'AI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직업을 넘어 소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박사는 “지난 5년 사이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의 차원을 넘어 노동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힘으로 부상했다”며 “대규모 언어모델의 등장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쓰기, 분석, 코딩, 설계, 기획과 같은 고도의 인지적 과업을 자동화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어느새 '기계'가 인간을 보조하는 시대를 지나 '기계'가 인간의 전문적 과업을 대체하거나 대체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질문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가, 늘리는가'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일의 수'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 자체를 다시 쓰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산업화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직업 구조는 지금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레 물게 된다”며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 하나님을 주신 소명이라면 인공지능이 바꾼 일의 지형과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

는 것은 옳은 일인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전의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던 것일까?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에도 여전히 '소명'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인지 노동을 광범위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알고리즘은 복제할 수 있고, 모델은 확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무한히 저장할 수 있다. 복제 가능한 이러한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복제할 수 없는 것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정말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희소성의 중심이 이동하는 시대, 더 이상 직업의 간판만으로는 자신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영역, 복제되지 않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결국 AI 시대의 경쟁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 곧 원본성과 본질을 확보하는 경쟁일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원본성과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단지 생존 전략으

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인공지능은 문장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사람의 내면을 벗어선화의 길로 이끄는 일은 결코 복제될 수 없다”며 “결국 신자의 일과 직업,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에 도취되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가까이 참여하는 데 있다. 일이 창조적이고 탁월해질수록 그 탁월함이 자신을 드러내기도 참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이며 기독교인의 일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이 본질과 원본성의 경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원본성은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일을 떠올리면 특정한 이름이 곧장 호명되는 이른바 '호명 사회'의 특성에 있지 않다”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바로 그 진리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다음 질문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근원적 원본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소명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뜻하며,



이춘성 박사 @기독교일보DB

이차적으로는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일과 직업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전자를 '내적 소명' 혹은 '일차 소명'이라 하고 후자를 '외적 소명' 혹은 '이차 소명'이라 구분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분은 이차 소명이 언제나 일차 소명의 범위 안에서 수행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생업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살피고 드러내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업과 일을 통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곧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본질”이라며 “그러므로 이 계명을 의

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직업 활동과 노동은 생계와 소비를 위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소명이라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소명의 핵심 질문은 '일을 거룩하게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일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길이 되는가'이다”라고 했다.

이 박사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곧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며 “종교개혁 전통에 따르면 소명은 성취를 통해 획득하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주어지는 부르심이다. 루터와 칼뱅은 소명을 특정한 종교적 직분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모든 신자의 삶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요청”이라며 “이 관점에서 직업과 일은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담론을 조금씩 좇으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태도도 막연한 공포에 잠식되는 마음도 아니”라며 “전환기의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히려 '잡잡함'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재정립”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 지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진다”며 “첫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살피고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는 삶은 기능과 효율, 능력을 숭상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서를 조용히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둘째,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낳는다.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 대답은 시장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이라며 “이때 교회는 단순히 윤리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혼란의 시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 황덕영 목사 “말씀... 시험 이기는 유일한 필승 전략”

기독교를 통해 진리의 허리띠·의의 호심경 강조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엡 6:13-14)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황 목사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하여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밀려오는 풍파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며 “사단의 간계는 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능히 이길 강력한 무기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그 승리를 위해 바울이 권면한 전신갑주 중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무장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했다.

이어 “첫째, 진리의 허리띠는 흔들리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된다. 영적 전쟁에서 가

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이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인 힘을 잃고 비틀거리게 된다. 여기서 진리는 곧 예수 자신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진리라는 의미”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의심 없이 믿는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올 한 해,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알팍한 판단을 말씀과 섞지 마십시오. 오직 기록된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고정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십시오”

라며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사단의 간계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둘째, 의의 호심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된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았다면,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며 “호심경은 군사의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수시로 공격한다. 이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의 호심경 뿐”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단이나 의지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모두 죄 된 본성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해야 한다. 말씀이



황덕영 목사. @기독교일보DB

내 심장을 덮고 있을 때,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황 목사는 “셋째,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필승 전략이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

셨다. 성령이 충만하셨음에도 시험은 찾아왔다. 은혜를 받아도 시험은 온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승리 비결은 단 하나, 바로 '기록되었으되'라

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며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넷째, 말씀의 부흥은 치유와 선교의 역사를 가져온다”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부흥이 일어났다. 말씀의 부흥이 곧 선교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며 “그런 자는 사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분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T)는 한나 밀러 킹 작가(사진)의 기고 글인 '구원은 무엇인가?(What is salvation anyway?)'를 3일(현지

시간) 게재했다. 한나 밀러 킹(Hannah Miller King)은 북미 성공회(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 소속 사제이자 작가다. 그는 크리스챤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 있는 더 바인 성공회 교회(The Vine Anglican Church)에서 부목사(associate rector)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많은 기독교 신학의 기저에는 공동된 메시지가 깔려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생각이다. 순결 문화(purity culture)는 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주신다고 암시하고, 변영신학은 거룩한 삶이 결국 건강과 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 많은 기독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식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들이 신앙의 동기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순종은 점차 원하는 결과와 연결되

면서 그 의미가 약화된다. 결국 하나님을 마치 축복을 얻기 위해 동전을 넣는 자동판매기처럼 여기게 된다. 필요한 종교적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사고가 자리 잡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거래로 축소되기 쉽다.

필자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거래적 신앙 구조'가 생각보다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도 일종의 교환 논리가 스며 있었다. 예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대가로 천국행 티켓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이었다. 어린 시절 필자가 속했던 복음주의 문화에는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신앙'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었고, 그 메시지는 어린 필자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오늘날 필자는 그 메시지 안에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필자는 자신의 자녀들도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천국을 얻기 위해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필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가족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베푸실 것이라 믿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동시에

가족은 교회에 성실히 출석했고 간절히 기도했다. 목회자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부어 기도했고, 교회 친구들도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자의 방식으로 돕고 응원했다.

처음 2년 동안은 암과 싸우는 일에만 한 희망과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은 점차 지쳐 갔다. 치유에 이르러서 가족은 점차 지쳐 갔다. 치유에 이르러서 가족은 점차 지쳐 갔다. 치유에 이르러서 가족은 점차 지쳐 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의 필자는 큰 혼란을 느꼈다.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했다. 가족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네 살이었던 필자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필자는 가족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치유에 대한 희망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깊어졌다.

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다: "주님, 저는 치유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치유를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묘비에 욕기 1장 21절을 새기도록 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필자는 수많은 갈망과 상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젊은 부부, 결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 독신의 외로움과 싸우는 친구, 성인이 된 아들의 중독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격언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안에 담긴 소망을 비영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구하라고 초대하신다. 우리의 욕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억누른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덜 슬프해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 속에서 신앙이 요

구하는 중요한 과제는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기독교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추상적 메시지, 축복의 분배, 심지어 용서의 약속만도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의 죄 사함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는 길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향해 있다.

이 진리는 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 다시 확인된다. 성도들은 회당을 품고 혹은 상체를 안고 성찬상 앞에 나온다.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채 나온다.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다.

필자는 성찬을 나눌 때 교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많은 약속을 해 주고 싶다. 그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가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전할 수는 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필자가 존경하던 한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그 말

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반복해서 얻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과정이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방향까지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은 평생 계속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끌릴 수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삶의 도덕적 기준, 교회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깨닫게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배고픔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모든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

예수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의 연합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갈망도 완전히 채워질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은 때로 아픔이면서 동시에 충만함이다. 우리는 우리가 찾던 분을 이미 만났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기도한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최승연 기자

## 믿기 전에 먼저 '해보라' 영적 실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도의 길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캐서린 브라운(사진)의 기고글인 '영적 실천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다'(Spiritual practices are leading people to Jesus)를 최근 게재했다.



캐서린 브라운은 2023년에 영국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UK)에 합류하여 'Being Human'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10년 전, 필자는 기도해 보기로 결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에 가 본격적도 없었지만, 그저 기도를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솔직히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것은 마치 생명줄과 같았다. 그 순간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믿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보는 순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여정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제시하며, 믿음을 나누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초,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부부와 자녀 식사를 했다. 그중 한 사람이 최근 '금식'을 시도해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 팟캐스트에서 건강과 정신적 유익에 좋다는 추천을 듣고 호기심

에 시작했다고 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금식이 예상보다 훨씬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금식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조급함, 이기심, 통제력 부족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 "금식은 기독교적인 건가요?"

금식을 시도해 본 것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는 기독교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고, 도구를 찾고, 삶

을 더 나아지게 할 무언가를 갈망한다.

조던 피터슨, 앤드류 허버먼, 스티븐 바틀렛 같은 인물들이 큰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기계발서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추천하는 많은 '도구'들은 사실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둔 실천들이다. 금식, 침묵, 감사, 나눔, 디지털 절제, 안식의 리듬 등이 그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 위해 실천해 온 영적 훈련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시도 이러한 실천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 실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동안 우리의 전도 방식은 주로 지적인 설명과 변증, 설교와 강화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며, 복음 대화의 유일한 통로도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이해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적 실천을 시도해 보려 한다. 그들은 금식을 해 보고, 감사 일기를 쓰고, 휴대폰을 끄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고, 안식의 방식을 고민한다. 처음에는 생산성 향상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질문과 영적 갈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방식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닫기 전에 먼저 영적 실천을 경험해 보도록 권하는 것은 어떻게? "금식은 기독교적인 건가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나눌 기회를 얻게 된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Being Human' 사역에서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믿기 전에 먼저 영적 실천을 시도해 보도록 돕는 방식이다. 변화에 호기심이 많고 영적으로 열려 있지만 방향을 찾지 못한 세대를 위한 도구다.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실천들을 탐색하도록 돕고,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곧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일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중소기업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교회력과 거룩한 사순절 보내기



강태광 목사  
월드서비스 USA 대표

인류는 노동과 축제를 위해 달력을 개발했다. 태양력은 해(Sun)를 노동과 축제주의의 기준으로 삼았고, 음력은 달(Moon)을 중심으로 노동과 축제주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달력은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여 농업과 수렵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로마 시대에는 세금 징수에 활용했다.

달력(calendar)이라는 말은 '회계 장부'라는 라틴어 칼렌다리움(calendarium)에서 유래되었다. 로마에서는 매월 초하루에 세금을 징수했고, 징수내용을 기록한 것을 칼렌다리움이라 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교회력이다. 교회력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중요한 영적 자산이다. 교회력은 교회사를 통해 다듬어진 기독교 신앙문화를 1년의 달력에 반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사역, 수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과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다. 교회력의 가장 일반적인 쓰임은 교회 절기를 알려준다.

큰 감동을 주지 않는 교과서와 따분한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력과 교회 절기로 신앙인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교회력의 절기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을 돕는다. 대강절은 성탄하신 주님과 만남을 준비하게 하고, 사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게 하는 기간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부활절을 소중히 여겼다. 부활절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절 세례식을 했다. 부활절은 그야말로 세례받기에 좋은 날이었다. 처음에는 부활절 세례식 준비는 세례 예비

자와 영적 후견인이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였고, 점점 온 교회 성도가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초대교회 성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명상하고 금식과 회개로 세례식을 준비하여 감격 가운데 부활절을 맞았다. 부활절 준비하는 기간이 1세기에는 40시간이었다. 예수님의 무덤속에 머문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3세기 초에는 부활주일 직전 한 주일을, 3세기 말에는 30일로 연장했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로 연장해 확정했다. 그런데 사순절이 세례 예비 교육 시간

을 넘어 성도들의 경건과 영성 훈련, 참회를 강조하는 사순절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수모, 조롱, 멸시를 당했고 참혹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초대교회의 사순절이었다. 중세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왜곡시킨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극에 달한 파행과 타락으로 종교개혁이 이뤄지고 내 외적인 갱신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주역들이 사순절을 백안시한 것은 다소 아쉽다. 하지만 사순절 전통은 현대교회가 회복해

야 할 영적 자산이다. 묵회 현장에서 사순절에 특별 새벽기도나 기도학교, 성령학교를 운영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다. 금년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된다. 올해 사순절이 경건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경건(Piety)"에는 두 개념이 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 함(God Fearing)이다. 둘째로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감(God-likeness)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감(Christ-likeness)이다. 올해 사순절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마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 죄는 덮거나 피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권태진 목사  
교포제일교회 담임

최근에 일어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며 기도한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건국했고 교육·의료·복지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교계와 나라의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한 김문훈 목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는 사무하는 교회를 사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도 김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심하게 욕하는 것을 듣고 난 후 회개를 촉구했다. 부흥사로 큰 회개를 하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목양하기 위해 동역자로 세운 이들을 나무라는 것을 듣으니, 교회와 성

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목회를 위해 부교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폭군처럼 비춰졌다. 담임 교역자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행한 일이라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이다. 욕하는 문제나 물질, 이성 문제가 있어도 회개가 선행되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바른 것자의 삶을 보여야 한다.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닌데 사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다.

자신만의 평안과 허물을 덮으려고 도망치듯 사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헐박하고 정죄하며 언론을 통해 사임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며, 회개를 모르는 세속적 방식일 뿐이다.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는 이들 가운데는 해외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죄는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죄는 회개하는 것이 답이다. 김문훈 목사는 상처를 입고 실망한 포도원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 사도처럼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심는 것, 교회에서 거두고,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목회자 한 사람의 타락과 실족은 목회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를 따르고 복음을 듣고 천국소망을 가졌던 성도들의 실망과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포도원교회 소속 어린이들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은 버려도 복음 전파는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남편 다섯을 두었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전도자로 쓰셨던 은혜를 믿는다. 총회, 노회, 그리고 동역자들과 정죄하는 이들에게 바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는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남의 죄에 간섭 말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순리이다. 다투어 흉악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평생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선한 왕이 된 것 같이,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노력하고 섬겨온 모든 것을 두고 떠날 각오까지 한 김문훈 목사가, 다시 회심하여 순교적 삶으로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 역사에 좋은 이름을 남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도한다.

##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이란?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기독교의 가현설(假現說, Docetism) 사상이란?

그리스도의 육체가 실체가 아니며 가현(현라어 '나타나다' 또는 '보이다'라는 의미의 'dokeo'에서 유래)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는 겉보기에만 고통을 당하셨거나, 고통을 당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는 그 육체에서 떠나셨던지 둘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있던 경향이 있었다. 초대 교회의 이 기독교 가현설은 주로 영지주의를 중심으로 나타난 기독교적 이단 사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의 인격적 실체와 육체적 고난을 부정한 견해였다.

2. 가현설의 핵심 내용과 신학적 배경

1) 가현설 핵심 주장: "예수는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 육체의 부정: 예수가 입었던 몸은 실제 혈과 육이 아니라, 환상이나 유령처럼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Appearance)'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예수 고난의 부인: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므로 인간처럼 배고픔, 피로, 특히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실제로 겪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교훈하기 위한 일종의 '연극'이나 '환상'으로 치부되었다.

2)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영지주의(Gnosticism)

가현설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적 이원론, 특히 영지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육체)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전제하에, 거룩하신 하나님(Logos, 말씀)이 더러운 물질 세계의 인간 몸을 입는 것(성육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었다. 즉 그리스도가 순결하시다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단지 환영(幻影)일 뿐이다. 따라서 영지주의는 구원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물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신령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영지주의는 육체에 갇힌 '영육신'보다 더 나은 창조주(아이온

소피아, 아인 소프)를 믿고 그 진리를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영지주의뿐 아니라 마니교 가현설주의도 그리스도의 인간 육체의 실재성을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3. 초대 교회의 대응

1) 사도 요한의 경고 요한의 '살과 피' 언급(요일 4:2; 5:6)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정하며 가현설적 정조를 경계했다.

2) 초대 교회 교부들의 경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가현설이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가 실제로(Truly) 태어나셨고, 진정으로(alethos) 고난받으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며 '참된 인성을 강력 수호했다.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도 영지주의에 대한 논박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가현이 아-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터툴리안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다.

3) 구원의 근거 만약 예수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가 겪은 죽음도 가짜가 되며,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게 된다. 곧 "그가 입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원리가 정립된 계기가 되었다.

4. 신학적 평가

1) 가현설과 기독교 가현설은 초대교회 사르디스의 멜리토나 순교자 저스틴의 기독교론도 극복하게 대배된다. 멜리토는 『유월절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매우 사실적이고 처절하게 묘사하며 그의 인성을 강조한다. 이는 가현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했다.

2) 종교개혁의 루터의 십자가 신학 보름즈의 루터가 강조한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가현설적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고통의 심장부로 들어오신 '육화된 말씀'이었다. 고통의 십자가 없는 루터 신학은 있을 수 없다.

3) 니케아 공의회(325년)에 준 자국: "참 하나님(신성)의 확립 이 가현설(Docetism)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육체적 실재성을 부정함으로써 초대 교회의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니케아와 칼케돈 공의회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정교한 교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구제가 되었다. 가현설은 예수의 신성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인성을 '환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항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올바르게 정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가현설적 배경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신성을 물질과 분리된 하급 신으로 보려는 경향에 맞서,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Homoousios)'임을 선언하였다(본질적 동일성 확립). 만약 그리스도가 가짜 몸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계시 또한 가짜가 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임을 확정하며 신성의 실재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예시의 실재성).

4) 칼케돈 공의회(451년)에 준 자국: "참 인간(인성)의 확립 가현설에 대한 반작용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는 칼케돈 신조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완전한 인성의 수호가 현실이 부정했던 '실제적 육체와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Perfect in Humanity)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5) 구원론적 자국: "입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가현설이 준 가장 큰 신학적 자국은 '구원의 근거에 대한 성찰'이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가짜 몸을 입었다면 그의 죽음도 가짜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다(실재적 대속).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했듯, 그리스도가 인성을 온전히 취하지 않으면 인간 전체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공의회 기독교론의 표준이 되었다(대표성 원리). 결국 가현설이라는 '극단적 신성 강조의 오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철학적 가설이 아닌 '역사적 실재'로 고백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보름즈의 루터가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중세의 공허한 이론들에 맞섰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니케아와 칼케돈의 이 결정들은 훗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이어지고 인류 구원의 구체적 위로의 메시지로 재해석되었다.



##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벤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http://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http://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 & Johnson

# 새벽을 깨우리로다

박진호 목사  
인터넷 기독교 문서  
사역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야, 깟지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움을 나누며 숙곳 끝까지를 축복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

남이며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사108:1-13)

### ◆비탄이 찬양으로

시편은 역사시, 비탄시, 찬송시, 예배시 등 주제별로 분류하는데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지은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런 분류와 조금 걸맞지 않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기존의 두 시편에서 인용하여 하나로 편집한 것이다. 먼저 1-5절은 시편 57에서 발췌했고, 6-13절은 시편 60에서 인용했다. 그런데 이 두 기존의 시는 비탄시에 속한다. 비탄시 두 개를 모았더니 찬송시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고난이 격심해 비탄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종교적 의무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감정이 고양되어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는 뜻도 아니다.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 높으심을 체험하여서 진정으로 감사할 거리가 있어 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목청 높여서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해

도 실은 찬양이 아니다.

고난 중에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본문 안에 있다. 먼저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1절) 무슨 의미인가? 오래 동안 고뇌 갈등 목상한 후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연유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였다.

또 새벽을 깨운다고 했다.(2절)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큰 골치거리였다. 그런 고뇌 끝에 얻은 해결방안이 결국은 찬양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히 고난을 이기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긍정적 사고로 바꾸면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뜻도 아니다. 밤새 갈렷으나 새벽녘에 이르러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 ◆진정한 찬양의 근거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도 궁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궁창은 하늘과 동의어다. 따라서 주의 인자와 진실 둘 다 너무 크고 완전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인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인자

와 ‘진실’을 찬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백이면 백 다 그분의 전지전능 하심만 찬양하지 않겠는가?

주의 인자는 무슨 뜻인가? 자격과 공로라곤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그 벌을 취소하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녀가 된 관계와 신분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다고 고백한 것이다.(6절)

주의 진실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데 절대적으로 순전하고 변함이 없으 시다는 것이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은 더 그러하다.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그분의 온전한 뜻이 실현되도록 이끄신다. 당신의 뜻에 거저, 추함, 왜곡, 모순, 불합리, 불공평 등은 단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히 100% 순수하고 완벽하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고난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정의와 공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 일만큼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곤혹스럽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 오해는 우리 쪽의 100% 잘못된 뿐이다.

고난이 생기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온전히 인자와 진실뿐이다. 신자를 고난에서 빠져나오게끔 구출하는 과정도 그렇다. 빠져나온 후의 결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6-9절에서 보듯이 그분은 세상 족속을 오직 돌로만 나누신다. 길르앗 유다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반면에 모압 에돔 블레셋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다.

그렇게 나누는 기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이 아닌지 뿐이다. 오해는 마셔야 한다.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무조건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인자와 진실로 대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쾌락을 즐기기에 바빴고 또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완전하지 않다. 죄 중에 빠질 때가 많고 심지어 우상을 여호와 함께 곁에서 숭배하기도 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행벌을 받아 고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께로 눈을 돌렸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언약을 맺은 후로는 당시

의 이름을 걸고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다. 요컨대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을 찾지만 하면, 긴급한 때만 찾아도 혹은 비록 죄 중에 있더라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 ◆다윗이 밤새 고뇌한 내용은?

그럼 다윗이 밤새도록 고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전의 고난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주셨는지를 회상하되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비추어 봤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하나님에게 기쁨을 얻을 만큼 잘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다.

새벽을 깨운다고 했다. 밤새도록 혼란스럽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그분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뜻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왜 이런 문제 하나쯤 바로 해결해주지 않지 의심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문제는 고난이 겹쳐서 힘이 들 때는 누구라도 정신이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그렇다. 가장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저 당황되고 곤혹스럽기만 하다. 특별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걱정, 염려, 의심, 불만, 불신, 분노, 저주, 억울한 생각 등이 겹쳐 도무지 울바른 사과의 틀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 우리 모두 항상 절감하는 대로다. 감정적 혼란과 이성적 고뇌를 한참을 거친 후야 겨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기도 중에도 여전히 감정과 사고는 무질서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 도와 달라 구해달라는 기도부터 먼저 하다가 차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모아져야만 비로소 겨우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 평강이 사실은 기도의 첫째 응답이다.

다윗이 밤새 고뇌 기도한 결론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평강을 넘어선 것이다. 그분의 자신을 향한 기쁨에 이제 자신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변 상황에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겨우 하루 밤새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은 당연하다. 여전히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다윗 외부에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반면에 변한 것 오직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내면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성품을 붙든 것뿐이다.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평소와 같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 재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함께 가지 않은 것 같았지만(10, 11

절)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를 이끌고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고백했지 않는가?(13절)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다윗은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주변 대적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이다. 군사력으로 그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많은 전쟁 경험이 있다. 철저하게 준비 훈련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밤새 불안하고 걱정에 떨었다. 그러다 새벽에야 승패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하나 다시 확인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은 그에 비례해 끝이 없다.

### ◆고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도 고난 중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일 수 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억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그분이 주신다는 맹목적 신뢰도 아니다.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보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있는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그런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따져보라.

만약 우리의 고난이 일일이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벌이라면 역으로 말해서 잘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렇다면 또 나쁜 일로는 반드시 고난을 받되 달게 받아야 한다. 또 응당 받아야 할 벌이라면 그 고난을 없애 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할 필요나 이유는 애초부터 전혀 없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히 내세울 만한 것을 평생에 두어도 제대로 쌓지 못한다.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가난한 채로 일생을 보낸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럼 고난 중에는, 그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더더욱 그러하지 않는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가? 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해선 안 된다. 어서 빨리 해결하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 발휘라는 뜻이다. 아니다. 그분의 인자와 진실을 생각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분의 방식대로 선으로 이끄시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유익이자 그분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럼 나에게 평강이 임하고 그분에게는 찬양 밖에 올려드릴 것이 없게 된다. 밤새 잠을 못 잤더라도 새벽에는 목청 높여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 당신은 새벽을 깨우는가? 새벽까지도 염려하는가?

#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그 죄악이 사람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이래 우리 겨레, 우리 백성들은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어 왔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의 극심한 좌우 대립과 빈곤,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연이은 6.25 전란, 3년 1개월에 걸친 전란이 휴전으로 마쳐진 이래 잣대 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의 세월, 그런 세월이 이제 81년째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국민들은 지치고 거칠어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처가도 그렇게 쌓인 아픔과 한(恨)을 풀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하나님은 말씀하십

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그들에게 외치라. 고통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하물과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 여 년 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에 이어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미래에의 비전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일러 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서 60장 1절)

Your True ESG Partner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 에큐메니칼 구원 개념의 특징(1)



## 현재적 관점의 구원 이해 경향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 차원을 모두 함께 포함한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니” (롬 10:9)라고 했으며,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엡 2:8) 라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라고 하셨다.

현재적 차원의 구원의 예는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기독교인이 현재에서 이루어야 할 수덕과 고난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도덕감화설이나 현대의 해방신학 등에

서 잘 볼 수 있다. 구원의 세 번째 차원은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다. 바울은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 8:23),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롬 13:11) 고 하였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십자가의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구원이 완성될 때 얻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원의 3차원 중에 방콕의 구원이해는 주로 현재적 차원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방콕은 구원을 4가지 차원으로 묘사하는데, 1) 착취와 반대되는 경제적 정의, 2) 억압과 반대되는 인간의 존엄성, 3) 소외와 반대되는 연대, 4) 인간 삶에 있는 실망과 반대되는 소망을 위한 투쟁 등으로 다분히 현재에 치중된 구원이해를 지니고 있다. 물론 방콕이 구원의 과거적 차원이나 미래적 차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적 차원의 구원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중은 앞에서 묘사된 구원의 4가지 차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방콕은 “구원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 관한 우리의 집중은 결코 구원의 개인적 영원적 차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개인적 영원적

차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지만, “구원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 관한 우리의 집중” 이란 표현 속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방콕의 구원 이해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방콕의 구원이해가 현재적 차원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구원의 3차원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구원의 과거적 차원이 확실할 때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 가능해진다.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은 값없는 은총 (Gabe)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의 과제(Aufgabe)인 것이다.

또한 미래에 얻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의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현재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구원은 가능치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구원이해는 구원의 과거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방콕의 구원 이해는 과거적 차원과 미래적 차원의 구원보다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을 지닌다.

# 공과교수 방법1: 말씀을 품은 교사의 진심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짧은 설교 한 편이 3천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찔렀고, 그 찔림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말씀 경청은 시작입니다. 찔림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 말씀의 효과는 예루살렘 골목, 평

범한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 성적 앞에서 무너지고, 인간 관계의 갈등 등으로 기도보다 자존심이 먼저 나옵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찔린 군중에게 단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방향을 바꾸라는 도전입니다. 그 결단 앞에는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거 삶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 社說

## 교민 안전, 정부-선교단체 유기적 협력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전면적인 중동전 재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지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는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지만 주요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귀국 일정이 불투명해 현지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국제공항은 일부 또는 전면 폐쇄돼 현지 교민과 한국 여행객 대부분이 숙소와 공항 등지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상황이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귀국 항공편이 언제 재개될지 앞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UAE 주재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소통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거로 보여 교민과 여행

객들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 해줄 일이 없다. 외교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는 이란과 이란의 미사일 보복이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과 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에서 외교부 측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로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교단 선교부와 중동지역 한인선교협의회 관계자 등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과 조속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 방첩에 협조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현재 중동지역 7개국에 3월 2일 18:00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해당 지역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로 해당 지역

을 방문하려는 국민은 일정을 취소, 연기하고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보다 높은 2.5단계로 사정이 더 나빠지면 최종 3단계(출국권고)로 이어지게 된다. 외교부는 중동전 확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외교부 안전 문자 외엔 다른 조치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혼여행객 등 단기 관광객들이 극도의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의사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 현지 공관과 교민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지금으로선 전쟁 상황이 조기에 끝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만도 없다. 정부와 교민사회, 선교단체가 더 악화될 상황에도 대비해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이룰 때다.

## 비상등 켜진 경제, 민생 외면한 국회 탓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어서면서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졌다. 환율 1500원 돌파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의미다.

지난 4일 밤 1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다. 전날 밤 1490원을 넘긴 지 불과 몇 분 만에 1500선을 돌파한 거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에 따른 중동전쟁 재발 여파 등 몇 가지 요인이 겹친 탓이지만 급격한 달러 매수세 유입으로 원화 약세가 가속화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 1500원 선은 우리 경제에 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외환시장에서 이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기는 이유다. 중동전 여파라 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신뢰도가 저항선으로 여겼던 수준을 넘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건 분명하다. 고향을 원유와 곡물, 원자재 수

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하고 국제유가까지 상승하자 국내 주유소마다 대폭 인상된 기름값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지난 3, 4일 이틀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7000선을 앞둔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5800선이 붕괴됐다. 5일 현재 일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동전 상황에 따라 또다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충격과는 중동전쟁이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전쟁 탓만 하고 있기에 경제 전면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각하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 상황과 관련해 “경제에는 심리가 중요하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하

려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율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의 책임을 가짜뉴스 유포에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그런 요인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과 그 속도가 훨씬 중요한 거다.

관세 및 고향을 대응을 위해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사법 3법’ 처리에 골몰한 나머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총리는 가짜뉴스 단속보다 여당에 협조를 촉구하는 게 급선무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739-8119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10-2700-3297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COICOM, 2026년 미국 휴스턴·과테말라시에서 기독교 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 미주 교회 미디어 사역 네트워크 확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북미주 지역 기독교 커뮤니케이터와 미디어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2026년 미국과 중남미에서 잇따라 개최된다고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독교 미디어 단체 COICOM(Confederación Iberoamericana de Comunicadores y Medios Cristianos)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2026년 하반기 미국 휴스턴과 과테말라시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OICOM은 미주 지역 기독교 미디어 사역자와 커뮤니케이터, 목회자, 리더들이 함께 모여 교회 사역과 미디어 사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COICOM 컨퍼런스는 교회와 미디어 사역자 간 전략적 연합을 강화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는 전문 교육과 사역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독교 미디어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주 교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휴스턴에서 첫 컨퍼런스 개최·히스패닉 기독교 미디어 네트워크 강화

CDI는 첫 번째 행사가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CMC Houston이 주관하며, 전체 프로그램은 스페인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COICOM 측은 “이번 휴스턴 컨퍼런스가 미국 내 히스패닉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 미디어 사역자들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기독교 방송, 디지털 미디어, 선교 커뮤니케이션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해 사역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미디어 사역의 변화하는 환경과 복음 전파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난 2024년 에콰도르에서 열린 COICOM 행사 개막 총회에서 COICOM 인터네셔널 회장 아놀드 엔스가 연설하고 있다. ©Diario Cristiano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과테말라시 대륙 컨퍼런스 개최

휴스턴 행사 이후에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륙 규모의 컨퍼런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COICOM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과테말라시에서 위치한 라 콤브레 컨벤션 센터(La Cumbre Convention Center)에서 대륙 컨퍼런스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이번 COICOM 대륙 컨퍼런스에는 목회자, 기업 리더,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등이 참석해 교회와 미디어 사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마케팅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사역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적 미디어 사역 분야인 라디오와 팟캐스트 사역에 대한 전문 세션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교육 세션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독교 콘텐츠 확산을 위한 협력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 ◆기독교 미디어 박람회 Fexpocom 개최

CDI는 이번 행사 기간에 Fexpocom 박람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Fexpocom은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사역 협력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행사 참가 기관들은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복음 사역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ICOM은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미주 지역 기독교 미디어 사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COICOM 리더십 변화 이후 사역 확대·기독교 미디어 연합 강조

CDI는 이번 컨퍼런스 발표가 COICOM 내부의 리더십 변화 이후 발표된 주요 사역 계획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최근 COICOM은 마이너 바르가스(Mynor Vargas)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조직 리더십을 새롭게 정비했다.

COICOM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열린 내부 회의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복음 확산과 세대 변화 대응을 위해 기독교 미디어 사역자 간 전략적 연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가정된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제약 속에서 선교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비제이에서 칼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당연하게 여겨졌던 안정의 시대는 끝났으며, 기독교 선교는 이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Assumed stability has ended and Christian mission needs to adapt)’를 26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이 글은 선교 전략과 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요청이다. 지금은 전략적 변화를 결단해야 할 시기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은 즉각적인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 기한을 둔 글로벌 동원 운동들이 여러 기독교 네트워크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우리는 전례 없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의 확장을 경험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함께 겪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전제에 기대어 기독교 확장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신앙적 확신에 뿌리내린 진지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더 이상 이전의 조건 위에 서 있지 않다.

◆가정된 안정의 종말  
오늘날 세계 기독교를 형성하는 제도적 구조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었다. 그 시기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 확장되는 서구 자원,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 활동을 위한 예측 가능한 시공간이 존재하던 시대였다.

물론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다수 세계(Majority World)’ 교회들은 빈곤

박해, 정치적 불안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선교 기관, 신학교, 재정 구조, 국제 네트워크 등은 대체로 ‘지속적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것은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도 아니고, 복음의 생명력을 평가절하하는 말도 아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때로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신앙’이 아니라, 조직화된 기독교 사역이 작동하는 ‘환경’이다.

정치 질서가 대체로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국경을 넘는 자금과 인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전제, 수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등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성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었다.

전후 국제 질서에서는 규칙이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중소 국가들도 강대국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접근권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국제 체계는 무기화되며, 사람·자본·정보의 이동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

제재, 관세, 자본 통제, 규제 강화, 비자 제한은 더 이상 예외적 조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조차 이를 일상적인 국가 운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준선이다.

미국은 관세와 제재를 외교 압박의 표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정렬에 따라 자본과 데이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인도는 특히 종교 단체를 포함한 NGO의 해외 자금 규제를 강화

했다. 이런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다.

이러한 세계를 흔히 ‘다극 체제’라 부르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결과다. 혼란은 더 이상 간헐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현실이 되었고, 계획 수립의 지평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 ◆영향력 중심의 이동

동시에 세계 기독교의 인구 중심도 이동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다수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본, 출판·인프라, 학문적 권위, 국제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여전히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교세 축소, 고령화, 문화적 주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앙이 가장 역동적인 곳’과 ‘제도적 시스템이 자리한 곳’ 사이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도덕적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더 이상 잉여 자원을 당연시할 수 없고, 영향력도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도적 지속성은 규모나 우산이 아니라 회복탄력성, 적응력, 신뢰에 달려 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단지 익숙함에 불과한지를 구분해야 했던 시기에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가치지키는 약점을 드러내지 않던 동시에 사명을 선포하게 한다. 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실제 상실보다 더 큰 피해를 낳는다. 지도자들이 과거의 형식을 무조건 보존하려 할 때, 그들은 붕괴를 지연시킬 뿐 신뢰를 잃는다. 앞으로의 충성은 ‘얼마나 확장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견뎌냈는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 ◆제약 속의 선교, 재정, 동원

안정의 시대가 끝났다면, 20세기 후반의 운영 환경이 다시 올 것처럼 선교를 재확할 수 없다.

특히 2033년, 예수 부활 2000주년을 향한 글로벌 동원 운동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 빨리 드러낸다. 많은 북미주, 오순절, 초교파 네트워크에서 2033년은 전도, 교회 개척, 지도자 양성, 국제 협력의 집중 목표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암묵적으로 다음을 전제한다: ▲국경 간 재정 흐름이 안정적인 것 ▲환율과 금융 환경이 예측 가능할 것 ▲규제 부담이 감당 가능할 것 ▲국제 인력 이동이 지속 가능할 것. 이 전제들은 더 이상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지금 직면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2033을 향한 동원은 지혜로운가?”가 아니라, “현재의 동원 모델은 중도 붕괴 없이 혼란을 견딜 만큼 회복탄력적인가?”이다.

### ◆세 가지 숨겨진 의존성

첫째, 국경 간 재정이다. 글로벌 선교는 소수 지역의 기부자와 특정 금융 채널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송금 지연, 규제 강화, 환율 변동, 국가 주위적 의심이 일상화되고 있다.

둘째, 국경 간 이동성이다. 비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종교 사역자는 중립적 방문자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행위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셋째, 시민-규제 공간이다. 정부들은 외국 연계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 주도형 비매력화된 사역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모든 압력은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취약한 모델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

### ◆적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응은 단순한 전술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 이본 자체의 변화다: ◆장기 고정 목표 대신 짧은 의사결정 주기 ◆확장보다 회복탄력성 우선 ◆중앙 집중형 권한에서 현지 분권화로 이동 ◆성장 신호 대신 운영 준비금과 법적·규제 역량 강화. 이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방향 전환이다.

어떤 기관은 축소해야 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2033과 연결된 일부 계획은 실패 전에 재설계되어야 한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믿음의 아니다. 오히려 선교를 약화시킬 수 있다.

### ◆인도의 사례

인도는 하나의 스트레스 테스트다. 엄격한 규제, 제한된 해외 자금, 공격 의심 속에서도 교회는 활발히 존재한다. 지속 가능성은 현지 리더십과 현지 재정에 달려 있다. 인도는 예외가 아니라, ‘돈, 이 동성, 시민 공간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 ◆마무라: 제약 속의 순종

2033과 같은 비전은 잘 사용되면 협력과 기도를 촉진한다. 그러나 잘못 설계되면 과시적 목표와 취약한 약속을 낳는다. 차이는 의도가 아니라 설계에 있다.

다가오는 10년, 사역은 “얼마나 시도했는가”보다 “무엇을 지켜냈는가”로 평가될 것이다. 가정된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제약 속에서 절제된 순종의 시대다. 지금 선교를 재설계하는 지도자들은 미래의 더 큰 상실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결정을 강요할 것이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앤코(주)**

###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 2026년 경기예술신학원 학/생/모/집

**설립배경**  
문화전쟁의 시대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적을 둔다.



원장 강대수 박사

**학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Ph.D 철학박사)

**경력**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세익스피어, 오셀로, 말괄량이길들이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싸르드르작, 이강렬연출(주연)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선객: 주연

개강: 3월 학제: 3년  
수업: 매주 월,화(오후6시) 학과: 연극신교학과

입학문의: 010-6325-3916  
주소: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83 현대프라자 4층  
**지구촌 복음방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갑급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리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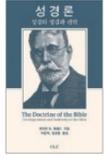
####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 성경의 영감과 권위

### 신간 '성경론'



성경은 인간의 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인가.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이 질문에 대해 개혁신학의 거장 벤자민 B. 워필드가 제시한 고전적 답변을 담은 책 《성경론》이 새롭게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워필드의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인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총 열 권으로 이루어진 《B. B. 워필드 전집》 가운데 제1권을 새롭게 편집해 번역한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어원학적 논의에 집중된 두 장을 생략하는 대신,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라는 글을 추가해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도록 했다.

워필드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로 규정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종교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 혹은 종교적 창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적 발명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제시된다.

그는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한다. 외적 현현, 내적 암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함께 작용하는 협력 작용이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성경은 선택된 인간 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되, 그들의 인격과 언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신다.

워필드는 이 과정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저자에 대한 적응”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 개인적 표현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계시를 전달하셨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성경의 계시를 단편적인 메시지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구속사적 계시로 이해한다. 다양한 시대와 방식, 서로 다른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계시는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의 이야기

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도 연결된다. 워필드는 교회가 처음부터 성경의 본성과 권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신앙과 삶의 권위 있는 기준이라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지켜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흔히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경 영감과 권위에 관한 그의 연구는 개혁신학 전통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다.

《성경론》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인간적 요소의 관계, 성경 영감의 의미,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대한 변증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이다. 신학생과 목회자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바울 신학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도 바울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13편의 서신을 기록하며 기독교 교리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여성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노예 제도에 순응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 속에서 출간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바울 신학》은 바울을 둘러싼 오해와 논쟁을 다시 살피며 그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칼라 스워드 워크스는 바울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선을 제시한다. 바울을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 신학자로서만 이해하거나, 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인물로 규정하는 시각을 넘어,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대 독자들이 고대 텍스트를 읽을 때 흔히 범하는 오류, 즉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입장에 맞게 해석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저자는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와 고대 문헌 자료를 토대로 바울 서신을 재해석하며, 바울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는 가난한 자와 노예,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향한 복음의 사선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차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환대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책은 특히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한 자기 인식에 주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과거

를 가진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사회적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엄격한 계층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되려 한다”고 말하며,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바울을 단지 개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신학자로서만 이해 온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바울의 메시지에는 단지 신학적 교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약자와 연대하고 서로의 짐을 지라는 복음의 실천적 요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의 시대에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최승연 기자

## 소설 『단종애사』 현대어로 재출간

### 춘원 이광수 장편소설 번역출간... 조선 비운의 왕 단종 이야기 다시 주목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다룬 이 영화의 흥행과 함께 단종을 소재로 한 고전 소설 『단종애사』도 현대어 판본으로 다시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단종애사』는 춘원 이광수가 1928년부터 192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장편소설을 현대 독자들이 읽기 쉽게 정리한 작품이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이정서가 원작을 바탕으로

로 문장을 현대어 감각에 맞게 다듬고 표현을 수정했다.

원작은 연재 소설 특성상 한문투 문장이 많고 인물 설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읽기 어려웠다. 번역 과정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현대적인 문장으로 정리하고 일부 인물 표기와 오류도 바로잡았다.

『단종애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유배를 거쳐 영월 청령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은 단종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과 충신들의 선택을 함께 다루며 역사적 비극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번역본에서는 장 제목도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 기존의 장 구성을 대신해 ‘세종대왕, 문종대왕의 유언, 나라를 잃다, 충신들의 죽음, 단종대왕, 죽음으로 살다’ 등의 제목으로 정리됐다.

번역자는 이 작품이 단순한 역사 비극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정의와 저항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광수는 작품에서 단종의 비극을 민심의 기억과 연결해 서술했다. 역사 속 슬픔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품 전반에 드러난다.

다만 저자인 이광수는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출판사는 이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 문학적 성과는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은 이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우리가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감상성 기능 향진증으로 인해 실제로 불면증, 불안감, 체중 감소, 탈모를 겪는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마치 그 증상들이 단순히 좌악 된 염려로 인해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조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내가 내담자에게 물질사용장애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건강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가 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왜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지 못한다. 내가 만약 그의 행동을 ‘술 취한 죄’라고 간주 한다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어떤 것도 질병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 이 원죄는 회개와 변화의 길을 열어 두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가장 유익하다.

찰스 하지 주니어 ‘의학적 이슈와 성경적 상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신 21:23).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갈 3:13)고 선포합니다. 골고다는 저주의 종착지가 아니라, 저주가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언덕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속죄의 제단이 되었습니다(히 9:12),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골 2:14-15).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골고다는 사탄이 웃던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언덕이었습니다.

홍영기 ‘예수님 십자가 신비 학교’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2 가을 어느 일요일에 저는 여는 때처럼 놀아도 학교에서 놀자라는 신념으로 학교에 가서 『수학의 정석』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짬뽕이라고 불리던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랑 같이 교회에 가면 짜장면을 사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침 점심 도시락도 안 싸 왔고, 출출하던 차에 별생각 없이 친구의 뒤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된 종교등부 예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향해서, “자, 저기 교회를 보라. 내가 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알려시는 시각적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 우주를 향해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시고, 온 세상 사람들과 천상의 존재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시작된 곳으로 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김형태 ‘은혜란 무엇인가’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적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 날 새를 함께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51)

**열심당**  
열심당은 유대의 애국적 정당으로서 헬라어로 '셀롯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신앙관을 유지하는 정치적, 종교적 신앙 집단이다. 그들은 유대에 대한 어떤 외세의 개입도 불허하고 증오하며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당시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장 크게 가진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다. 열심당의 역사적 결성은 유대 민족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의 폭정 하에 시달리던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 하에 창설되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Jos. War II. viii. 1; Jos. Antiq. XVIII. ix.23).  
열심당은 셀롯당, 가나안당, 갈릴리당으로도 불리었는데 그것은 열심당의 창설자였던 유다의 이름이 헬라어로 '셀롯'이었고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B.C. 4년' 헤롯이 죽자 갈릴리 지방에서 대규모적인 봉기를 일으켰고 '주후 6년'에는 바리새파의 사독(Zadduk)과 연합하여 로마에 저항하였

다(행 5:37). 갈릴리 폭동 이후 갈릴리는 유대 독립운동의 본원지가 되었으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B.C. 4-A.D. 6 재위)가 학살을 단행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열심당은 극단적 유대 민족주의 단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 출신이 있었다. 그는 셀롯인이라 하는 시몬(마 6:15, 행 1:13) 또는 가나안인 시몬(마 10:4, 막 3:18)이었다.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당과 연관시켜 언급한 적이 있고(행 5:36-37) 바울도 열심당이라는 혐의를 받았다(행 21:38).

열심당원들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였고 자신들이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자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성전(The Holy War of GOD)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다. 열심당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국애족의 정신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스몬가의 '맛다디아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의에 불

타올랐던 비느하스와 엘리야를 예증하여 자신의 애국애족적 통분함을 토로한 것은 열심당원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열심당원들의 신앙적 전통과 기원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에 의하여 바알의 예배자를 살해한 제사장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민 25:7-13; 시 106:28-31)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엘리야(왕상 18장)의 신앙을 뒤따르는 것으로 보게 된다.  
열심당원에 대한 기록은 유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여 전해진다. 요세

푸스는 'A.D. 66-67'년의 겨울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원들의 과격적 행동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들을 (도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세푸스가 그들을 도적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에 그들이 로마군을 공격하면서 매우 잔악한 살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로마가 대군을 파병하여 유대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탄압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열심당원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고 파괴된 후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으나 지역적인 저항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Deep 바이블 신구약 중간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1)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직전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주목할 만하다. 이 400년의 공백기를 '신구약 중간기(intertestamental period)' 혹은 '초기 유대주의(early Judaism)'라 부른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의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일어난 세상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시기는 크게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그 후 헬라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교가 이 두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생존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유대교의 헬레니즘화의 수용과 거부가 흥미로운 주제이다.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캄비세스(Cambyses)의 아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구어 냈다. 주전 559년 나이 40세의 고레스는 안산(Anshan)이라는 작은 왕국을 상속받았다. 이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메데 제국(Median Empire)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 무렵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Nabonidus 혹은 Nabunaid)였다.  
철학자요 신비가였던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Marduk)으로부터 고레스가 정복자로 등장할 것을 들었다. 마르둑 신의 제사장들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이외의(수메르와 아

카드의) 이방 신들을 의존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나중에 고레스가 바벨론에 진격해 왔을 때 환영했다. BC 550/49년에 고레스는 자신의 군주였던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Astiages)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때 바벨론 제국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르우술(Belsharusur)이 통치했다. 안산(Anshan)의 수도인 파르사(Parsa)에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를 정복하려고 왔을 때,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고레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고레스는 관대한 정복자였기에 메데의 관료들을 그대로 살려두어 그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레스는 메데 제국의 영토를 모두 다스리게 되었다. 그 당시 세계의 열강들이었던 리디아(Lydia)와 바벨론도 고레스에 의해 정복당했다. 그리고 이집트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Cambyses II)에 의해 정복당했다. 고레스는 그리스, 파르티아(Parthia) 그리고 히르카니아(Hyrkania)도 정복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 조치 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방인인 고레스가 도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 귀환을 그 당시의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팔레스타인에 친 페르시아 정책과 기운을 심어줌으로써 애굽을 정복하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고레스의 관대한 성격은 그의 현명한 국제 정세를 읽는 눈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이다.  
여기서 고레스와 유대인의 관계를 살펴보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말은 관원이었다. BC 537년경, 고레스는 포로 귀환하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편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 기구들을 돌려보냈다(에스라 6:35). 고레스의 직령대로 팔레스타인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했다. 이때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에는 앗시리아의 정복자들에 의해 추방된 포로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스 4:5). 페르시아인들은 고레스를 '아버지'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스승'이며 '입법자'로 여겼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를 종식시켜 새 시대를 연 하나님의 종이었다. 고레스는 신민들에게 페르시아의 사상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인도의 고대 문명들을 종합하는 일을 했다.  
**다리오**  
고레스 사후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학개와 스라라가 선지자로 있었다. 다리오는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와 우편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의 상비군은 기병 2,000명, 귀족 출신 보병 2,000명 그리고 불사신들

(immortals) 10,000명 정도의 소규모였다. 주전 512년경 다리오는 7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스키토족(Scythians)을 공략했는데 이것이 아시아와 유럽의 첫 번째 군사 접촉이었다. 다리오는 BC 518년경에는 나일강과 수에즈만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다. 다리오는 계속하여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원정했다. 마라톤(Marathon)에서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았고 그 결과 이집트도 다리오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집트의 반란이 진압되기 전에 다리오는 죽었다.  
**아하수에로 (BC 486/465)**  
다리오가 고레스의 딸 아투스에게서 나온 아들인 아하수에로에 4:6; 페르시아어: 크사야르사, 영어: 크세르크세스)가 35세에 다리오 후임자로 발탁되었다. 아하수에로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반란을 잠재웠는데, 스스로 '페르시아와 메데의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바벨론은 영원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임을 나타냈다. BC 480년경 아하수에로는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46개국으로 구성된 군대의 병력을 보충했고, 엄청난 함대도 동원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군대가 페르시아를 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아하수에로가 아테네를 정복했지만, 살라미스(Salamis) 해전에서 패배를 맛보았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도였고 자기 과시를 좋아했다. 그 후 즉위 20년 만에 그의 친위대장인 아르

타바누스에 의해 암살당했다.  
**아닥사스다 1세 (BC 465/425)**  
아 닥 사 스 다 롱 기 마 누 스 (Longimanus: '손이 긴 사람'이란 뜻)가 왕이 되었을 때, 애굽과 그리스 등에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할 책임을 떠맡았다. 이 무렵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포로 귀환을 요청했다. 페르시아 제국 시기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귀환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아닥사스다 제7년에 유대인들이 아하와(Ahava)에 집결하여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귀환 길에 오른다. 귀환 후 에스라는 잡혼(mixed marriage) 문제를 처리했다. 이때 느헤미야의 활약도 컸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힘쓴 후 12년 만에 다시 수사(Susa)로 돌아왔다가, 백성들의 신앙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아닥사스다 때로부터 페르시아는 기울기 시작했다. 다리우스 2세와 아닥사스다 2세 통치 때는 반란이 만연했고 과도한 세금이 문제가 되었다. 아닥사스다 3세는 애굽을 재정복하며 영화를 회복하려 했으나 환관 바고아스에 의해 독살당했다. 다리우스 3세가 주전 336년에 왕이 되었으나, 같은 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에게 333년 잇수스(Issus)에서 참패당하며 페르시아 제국은 몰락했다. <계속> 열방선교단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05:1 NIV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 praise: 칭찬, 찬사, 찬양 (讚揚)  
- proclaim: 선포(宣布)하다  
- nation: 민족  
☞ 'the nations':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민족들  
- 'what he has done': 그가 지금까지 하신 것  
☞ 현재완료 문장에는 대부분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어요.  
※ 'make + 목적어(what he has done) + 과거분사(known)'의 구조  
시편 105편 1절  
주님께 찬양 드려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리하여 그가 지금까지 하신 것이 그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라.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목회자를 위한 주해묵상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소서**

### 1. 오늘의 말씀 : 창 1:4-25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 시작 기도

아버지! 언약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만물을 보니 그 안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 앞에 티끌과 재가 되어 당신께 나아옵니다.

오직 이들의 공로로 나아가오니 당신의 품에서 호흡하며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을 떨치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그 지으신 만물에 충만하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 3. 본문 주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그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셨다.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

이제 넷째 날의 창조가 계속된다. 하늘의 궁창에 빛(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징조가 되게 하셨다(14절).

또 우주공간에 떠 있는 빛들로 하여금 땅에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15절). 하나님이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큰 것으로 낮을, 작은 것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16절).

전자는 태양을 뜻하며 후자는 달을 뜻한다. 또한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17절).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18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과 땅의 생물을 지으셨다(20-25절).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공중에는 새가 날도록 하셨다(20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히, 탄닌)과 물의 생물(히, 네페쉬 하야), 날개 있는 새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21절).

탄닌은 고대로부터 신화적 괴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 안에 넣음으로써 비신화화되고 있다.

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그 이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의지와 재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은 형태 없이 혼돈되고 공허하였다(formless and empty). 하나님은 형태 없는 땅에 빛과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드셔서 형태를 갖추셨다.

이어서 공허한 궁창을 광명체들과 날개 있는 새들로 채우시고, 공허한 바다와 땅을 각종 생명체로 채우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충만으로 점차 완성을 향해간다. 그 정점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는 사람의 창조에 있다.

한편 하늘의 궁창에 만들어진 광명체들로 인해 계절과 날과 해가 정해졌다.

현대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창조가 약 150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추



측한다. 이는 성서의 6일 창조와 도저히 합일할 수 없는 상이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1회 자전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서 하루는 태양과 지구가 아직 생기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럴드 슈뢰더는 '신의 과학에서 우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분한다. 그는 우주의 시간을 가리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여 엄청난 팽창 해가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담의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을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시간의 개념은 중력과 속도에 의해 변한다.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최가 우주상대에서는 중력이 막대하여 시간이 매우 느렸다.

슈뢰더의 계산에 의하면 성서의 첫째 날은 오늘날 인간의 시간으로 약 80억년에 해당된다. 보다 팽창하여 중력이 떨어진 둘째 날은 약 40억년에 해당된다.

다시 셋째 날은 20억년, 넷째 날은 10억년, 다섯째 날은 5억년, 마지막 날은 2억 5천만년이 된다. 이 같은 계산법에 의하면 성서의 여섯 날은 현대천문학자들이 주장하는 150억년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

(157억 5천만년). 때문에 시편 90편의 말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아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로이다"가 진리이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언약 안에서 고백하는 시이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다(19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신 것은 삼림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오게 하심이다(20절).

젊은 사자들은 그 밤에 자기들의 막이를 쫓아 부르짖되 그 막이를 하나님께 구한다(21절).

그러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는다(22절).

해가 돋는 그 때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23절).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주께서 지혜로 짐승과 사람을 다 지으셨으니 그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24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25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바다의 괴물)이 그 속에서 뛰는(26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다(27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피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28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29절).

주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신다(30절).

여호와와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며 여호와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31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신다(36절).

그러나 언약 안에서 창조의 은총을 아는 평생도록 창조의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33절).

그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 4. 나의 묵상

나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머물며 인하여 창조의 은총이 내게 새롭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시고 그 때를 따라 피조된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셨다.

시편 104편,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나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 바란다. 신학적

존재인 바다의 괴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분의 의지와 다스림 안에 있다.

밤새 눈이 내린 새벽, 다시 낮이 되어 깨어나게 하심이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신즉 내가 받으며 그가 손을 피신즉 내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주 안에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리요!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이 주 안에 있다.

모든 생물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그런 인생에게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한다. 무궁한 창조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다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그의 얼굴 보기를 구한다.

### 5. 묵상 기도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만상에 당신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위한 때 만물은 사람을 위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한시적인 삶,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창조의 질서와 충만을 망실한 이 땅을 돌아보소서. 만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해가 돋으면 사람이 나오고 해가 지면 짐승이 나옵니다. 하오나 작금의 현실은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하나님의 구분도 망실하며 타락과 고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질서를 따라 살며 당신의 충만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악을 멀리하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날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평생 당신을 즐거워하리이다.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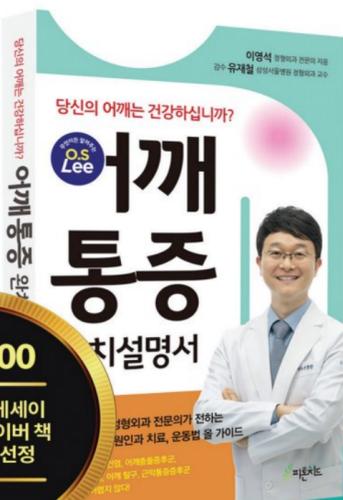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형섭 목사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 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계·선교·NGO 동향

#### 교계

##### 2026년 3월 6일(금) 주요 교계 일정표

구분	주관 단체/교회	주요 일정 및 내용	시간 (현지 시각)
연합 예배	세계 기도일(WDP)	2026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작성곡: 나이지리아)	사순절 사회적 책임 강조 활동
	L 한영교회	여전도회협의회 주관 예배	11:00
	L 남양주성생원교회	남양주 지역 연합 예배	11:00
	L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해외 지역 연합 예배	19:00
	L 콜로라도 산위예교회	해외 지역 연합 예배	19:30
교단 및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2026 목회자 영성 대회 (3일 일정 중 2일차: 새벽 예배, 특강, 영성 집회 등)	종일
	개별 교회	금요 기도회 및 부서 사역	
	L 나침반교회(NKUMC)	'찬양과 기도의 밤' 예배	20:00
	L 영은교회	부서별 금요 사역 진행	오후/저녁
기타	해외 한인 교회	일광절약시간제(DST, 3/8 시작) 대비 시계 조정 공지	

2026년 3월 6일, 기독교계는 전 세계 초교파 여성 기도 운동인 '세계 기도일(World Day of Prayer)' 예배를 비롯해 주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6일, 국내외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마태복음 11:28-30)'를 주제로 한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린다. 올해 예배문 작성곡은 나이지리아다. 국내에서는 오전 11시 한영교회(여전도회협의회 주관)와 남양주성생원교회(지역 연합) 등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해외 지역은 현지 시각에 맞춰 시카고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오후 7시), 콜로라도 산위예교회(오후 7시 30분) 등에서 일정에 돌입하며, 미주평안교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8일까지 관련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는 백석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2026 목회자 영성 대회'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특강과 영성 집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별 교회 단위에서는 나침반교회(NKUMC)가 오후 8시 본당에서 '찬양과 기도의 밤'

예배를 드리며, 영은교회는 부서별 금요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대비하여, 6일을 전후로 성도들에게 시계 조정 관련 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지역 한인 교회들은 오는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일광절약

#### 선교

##### 2026년 3월 6일(금) 국내외 주요 선교 단체 일정표

구분	단체/구명	주요 일정 내용	장소 및 시간 (현지 기준)
연합 예배	세계기도일 연합	제139주년 세계기도일 예배 (나이지리아 주제)	대구 효목제일교회 (11:00) / 덴버 산위예교회 (19:30)
연합 행사	달라스중앙감리교회 & 기아대책	'콜링 콘서트' 및 선교전략 세미나	달라스중앙감리교회 (19:30 찬양 집회)
선교 훈련	GP선교회 & 헬로쉽교회	카이로스(Kairos) 선교 집중 훈련 (6일차)	메릴랜드 헬로쉽교회 (19:00 ~ 21:20)
심사/면접	두날개선교회	선교사 훈련생 선발 본부 스테프 면접 (1일차)	풍성한교회(대면) 및 온라인 화상 면접
행정 마감	바울선교회	iSchool 등 특정 교육 과정 신청 접수 마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본부 접수처
행정 접수	KWMC (한인세계 선교 협의회)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차 사전 등록 진행	KWMC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주요 선교 단체 등은 대규모 연합 예배와 선교 훈련, 행정 마감 일정을 일제히 소화할 예정이다.

미주 지역 중심의 선교 집회 및 콘서트 개최 오후 7시 30분, 달라스중앙감리교회에서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하는 '콜링 콘서트(The Calling Concert)'가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과 유은상 감정화 홍보대사가 참석하여 찬양과 선교 비전을

공유할 전망이다.

선교 훈련 및 행정 분야도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GP선교회와 메릴랜드 헬로쉽교회가 협력하는 '카이로스 집중 훈련'은 3월 6일 오후 7시부터 6일차 당일 세션을 이어간다. 두날개선교회는 선교사 훈련생 선발을 위한 본부 스테프 면접을 3월 6일부터 이틀간 대면 및 화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바울선교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iSchool 등 특정 교육 과정의 신청 접수를 3월 6일 당일 최종 마감한다. 또한,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2차 사전 등록' 업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GMS(총회세계선교회) 등 일부 단체는 작전 주인 2월 말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 분립예배 등 주요 업무를 마무리함에 따라, 3월 6일 당일에는 별도의 해외 행사 없이 정규 사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NGO

##### 2026년 3월 6일(금) 기독교 NGO 및 교계 주요 일정

단체명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기아대책(KFHI)	마감	'2026년 희망동지SOS-기대드림' 모금 사례 접수 마감	당일 접수 종료
한국해비타트	행정	관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공업체 현장 설명회 및 계약	행정 절차 진행
월드비전	캠페인	'2026 꿈염서 그리기대회' 작품 접수 진행	기후위기 대응 주제 (진행 중)
한국컴패션	캠페인	사순절 성경 필사 캠페인 '두려워 말라' 진행	필사 노트 참여 및 판매 (진행 중)
샘복지재단	캠페인	사순절 '40일간의 동행'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	모금 및 기도 운동 (진행 중)
굿네이버스	사업	위기가정 지원 및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가동	경찰서 접수 및 교육청 협력 지원

2026년 3월 6일 금요일, 국내외 기독교 NGO와 교회 기관들은 주요 모금 캠페인의 마감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026년 희망동지SOS-기대드림' 모금 캠페인의 대표 사례 접수를 6일자로 마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서울 관악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관련해 선정된 시공업체와의 현장 설명회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한국컴패션의 '두려워 말라' 성경 필사 캠페인, 샘복지재단의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을 위한 '40일간의 동행', 월드비전의 '꿈염서 그리기대회' 등 사순절 및 아동 지원 캠페인은 6일에도 지속된다.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제2차 에큐포럼' 개최... 10년 후 한국교회 미래 전망 논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10년 후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에큐메니컬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공간이제'에서 '2026 제2차 기사연 에큐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한국교회: 캐나다, 미국 교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리며, 북미 교회의 변화와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캐나다연합교회(UCC)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2035를 향하여(Toward 2035)'가 주요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해당 보고서는 캐나다연합교회의 장

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전인 목회자의 비율이 약 5%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약 32만 명에 이르는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장기적으로 1만 명 이하로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러한 전망은 북미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교회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분석이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5년은 한국교회가 선교 1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에큐포럼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 아시아 국장인 허원 목사가 발제를 맡아 북미 교회의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장로교회 한국선교회 대표 이해영 목사가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해 북미 교회의 선교 경험과 교회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색동감리교회 담임인 송병구 목사가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교회의 현실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42회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 성과 공유

한국기독교역사학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제44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는 오는 3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제442회 학술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학회 측은 회원과 연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발표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를 주제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학술적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발표회의 사회는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총무이사이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방원일 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제442회 학술발표회에서는 두 편의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시집 『빙어(氷語)』에 나타난 김진호의 생애와 사상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된다. 이 발표는 호서대학교 박사 이경희 연구자가 맡았으며,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임석재 교수가 논찬을 맡아 발표 내용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서는 광주 지역 기독교 역사문화자료의 개발과 활용 방안울 다룬 연구가 소개된다. 광주대학교

한규무 교수가 '의림(義林) 양림(楊林)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광주 기독교 역사문화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 대한 논찬은 한남대학교 인문학원 송현강 연구교수가 맡아 관련 연구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발표회 발표문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는 이번 제442회 학술발표회를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럽 청소년 4명 중 1명 만 디지털 웰빙 양호”

## 세이브더칠드런, 7,755명 대상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 발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과 공동으로 실시한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Digital Wellbeing & Resilience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등 유럽 9개국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체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실제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청소년은 전체의 28%로, 4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온라인 접속률에도 낮은 디지털 웰빙 지수**

조사 결과 유럽 9개국 청소년의 평균 95%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었으며, 83%는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또한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FOMO(Fear Of Missing Out)'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만큼 심리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41%가 사이버 괴롭힘을 걱정한다고 답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람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이 방해받는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양호'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비율이 26%에 그친 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디지털 문해력 높지만 자기조절 역량 한계**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능력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 AI 생성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이는 디지털 문해력은 갖추고 있으나 자기조절 역량에서는 한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 웰빙을 단순한 기술 이해 수준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사용 습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차이도 확인됐다. 루마니아 청소년의 82%는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양호' 또는 '높음' 수준을 기록해 9개국 평균인 72%를 상회했다. 알바니아와 튀르키예 역시 온라인 공감 능력과 정체성-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국은 전반적으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온라인 이용 시간

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조사됐다. 영국 청소년의 14%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했으며, 주말에는 그 비율이 17%까지 증가했다. 자기 관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비율도 21%로 평균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집단에서 더 낮은 디지털 웰빙 수준**

조사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상태에 따른 격차도 드러냈다.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불안·우울 증상을 겪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전반적인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기술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경과 정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플랫폼 '안전 설계' 및 정책 개선 촉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디지털 웰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 관리 강화와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기능 차단을 촉구했다. 또한 온라인 착취 및 유해 행위에 대한 예방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와 교육자, 부모와 보호자가 협력해 교육을 통해 아동이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웰빙을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제21회 한국 네비게이트 목회자 세미나 열린다

오는 6월 9일 개최



한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교회제자훈련원이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회관에서 제21회 한국 네비게이트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20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주제로, 지역교회 안에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나누고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예수께서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사명이 가장 큰 위임명령임을 강조하며, 예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제자 양육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이 사명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각 지역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복음의 열매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배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며 지상사명 성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이후 진행되는 후속 양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선교회 홈페이지 및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등록비는 7만 원이며 교재비와 점심 식사가 포함된다. 등록은 KB국민은행(371101-04-181341, 예금주: 네비게이트 교회제자훈련원) 계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차는 약 10대까지 가능하며, 만차 시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문의는 전화(02-334-8402)로 하면 된다.

한편, 네비게이트 선교회는 국제적이고 복음적인 초교파 선교 기관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 지역과 족속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추수할 일꾼을 배가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일시: 2026. 6.9 (화)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한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회관 (서울시 마포구 삼미산로 54)

등록: 7만원 (교재비, 점심 포함) KB국민은행 371101-04-181341 네비게이트 교회제자훈련원

문의: (02) 334-8402      정지동 기자

## 감신대, 2025학년도 웨슬리논문상 시상식 개최

현재철·손영주 수상...

웨슬리 신학 연구 장려와 '경건·학문·실천' 전통 재확인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가 얼마 전 교내에서 2025학년도 '웨슬리논문상' 시상식을 열고, 웨슬리 연구에 기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웨슬리논문상은 김진두 석좌교수(전 총장)의 장학금 후원으로 제정된 상으로, 교내 존 웨슬리 연구를 장려하고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자는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현재철과 목회신학대학원 예배학 전공 손영주다.

손영주는 「한국교회 찬송가의 성례전 찬송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찬송가에 나타난 성례전 찬송을 분석하고, 예배 안에 담긴 웨슬리적 성례 이해를 조명했다.

현재철은 「웨슬리의 정의와 성화 그리고 신화(Theosis)와의 관계 탐구 - 현대 사회에 웨슬리 성화의 필요성」을 발표해 웨슬리의 정의와 성화 이해를 재해석하고 성화 신학의 현대적 의미를 조직신학적으로 제시했다.

수상자들은 김진두 석좌교수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웨슬리 신학을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왼쪽부터) 오광석 교수(기획연구처장), 현재철, 손영주 수상자, 김진두 석좌교수, 유경동 총장, 박성호 교수(대학원 교무처장), 임진수 교수(대학원장). ©감신대

김진두 석좌교수는 "웨슬리논문상의 뜻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서 꾸준히 웨슬리를 연구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신학과 영성의 영원한 유산"으로 규정하고, 경건과 복음주의, 에큐메니즘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웨슬리의 사상이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 안에 담긴 웨슬리적 성례 이해를 확장되기를 바란다며 "웨슬리의 학도들이 계속 배출되고 연구가 더욱 심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경동 총장은 "웨슬리의 학문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성화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이 웨슬리적 신앙과 실천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정지동 기자

## 서울신대, 2026년 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 오리엔테이션 개최

상담 윤리 교육·운영 결과 공유 전 학기 상담 646건·결신 93명, 만족도 93% 이상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가 얼마 전 백주년기념관홀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그룹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는 경건회로 시작해 외래신앙상담 목회자 및 멘토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기에는 외래신앙상담 목사 12명(재위촉 8명·신규 4명)과 멘토

그룹 4명(재위촉 3명·신규 1명)이 위촉됐다. 이어 2025학년도 2학기 신앙상담 결과 보고와 2026학년도 1학기 운영 안내, 학과별 담당 소개 등이 진행됐다.

상담 윤리 교육은 한영희 교수가 맡아 공감의 윤리, 비밀유지와 보장, 상담 관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학생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원칙과 유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교외 식당에서 학과별 식사 교제를 통해 한 학기 사역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목처가 공유한 2025학년도 2학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채플 신청자 1,282명 가운데 565명(44.1%)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총 64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은 교목단 315건(48.8%), 외래신앙상담 목사 303건(46.9%), 멘토 그룹 28건(4.3%)이 분담했으며, 2회 이상 상담 사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담 참여자 중 93명(16.5%)이 결신했으며, 해당 학기 세례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상담실이 편안했는가"라는 문항에는 9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상담자가 경청·이해해 주었다"는 문항에

는 100%가 긍정 응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문의: 032-340-9477      정지동 기자



서울신학대학교 2026-1학기 외래신앙상담 목회자·멘토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기념 사진. ©서울신대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 음악목회자의 역할: 교육가(educator)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실제적인 교회의 기능을 종합할 때 교회의 기능은 예배(worship), 교제(fellowship), 선교(mission), 그리고 교육(education)으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교회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그리고 예배, 교제, 선교기능의 원활한 축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능 등이 있는 것이다.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능이 중요하지만 교육적 기능이란 다른 기능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고, 모든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김남수

약적 지도자의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교회 안의 음악 전문 단체에 속해 있는 성가대원, 또는 기악 합주단 등의 단원들은 그들의 음악적 기술이 음악목회자의 지도에 의하여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교육은 성도들이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실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변화하게 하고, 교회음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음악적 발전을 가져온다. 구약시대 "레위 사람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대상 15:22)라고 했듯이 음악목회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음악목회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훈련하고 연구함으로써 교육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 소홀하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어떤 교회의 회중찬송 인도자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인도로 인하여 회중찬송을 방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것은 음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회중찬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며, 또한 그릇된 회중찬송의 지도력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악목회자는 회중찬양 인도와 교육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배에 있어서 회중찬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찬양하는 자세가 변화 되도록 교육의 본이 되어야 한다. (2) 음악목회자는 예배음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성경공부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 모임이 교회에서 행해지듯이 관심 있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찬송가학 또는 교회음악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교회음

악이 질적으로 향상되어 수준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찬양음악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음악목회자는 모든 교회음악인(찬양대원, 반주자, 독창자, 기악 연주자 등)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음악목회자는 교회음악인의 음악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음악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별한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육자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한다. 즉, 음악목회자가 교육자로서 교회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에는 신앙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교회 음악인들의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음악목회자가 가진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 김남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음악출판사)과 《코랄 앤딩이 있는 찬송 테스칸트》(미완성출판사)를 작곡하여 출판했으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새찬송가 158장) 외에 여러 교회음악을 작곡했다.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숨겨진 찬송이야기』(아가페북스) 등을 저술하여 교회음악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다.

# 새 노래가 뭐길래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모르는 새 노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아는 찬양을 좀 불러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것인데 노래를 모르니 새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A 권사님)



정유성

“목사님, 예배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합니다.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만 불러야지 그 외에 새 노래들을 예배시간에 부르면 안되는 겁니다.” (B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왜 늘 하던 그 찬양만 하나요?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좋은 새 노래들을 우리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C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에게 늘 따라 다니는 질문과 견의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를 만하면 꼭 굳이 제게 다가오셔서 확신에 찬 태도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설교시간이나 강의시간에 새 노래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오랫동안 굳어질 새 노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위의 세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 노래입니다. 꼭 찬양 인도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이 새 노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위의 질문들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며 힘들어 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의 의견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게 지역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나... 하며 고민 아닌 고민을 할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성경에서 말해주는 ‘새 노래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새 노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 33:3, 40:3, 96:1, 98:1, 144:9, 149:1, 150:1) 2. 새 노래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 33:1, 149:1, 24:5, 9:143-5) 3. 새 노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 하

나님의 구원과 승리입니다. (시 33:18-20; 96:2; 98:1-3; 144:10; 149:4; 150:1-2) / 시 144:1, 6; 149:7-9; 사 42:13)

4. 새 노래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 즐거운 태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 33:1, 396:1; 112:9; 46, 8; 149:2, 3, 5; 사 42:11)

5. 새 노래는 범위가 분명합니다 : 모든 약자가 동원되고, 모든 만물이 동참하는 노래입니다. (시 33:2, 3; 98:5, 6; 144:9; 149:3; 150:1) / 시 96:11, 12; 98:7, 8; 사 42:10, 11; 계 5:11, 13)

새 노래는 내가 잘 아는 노래냐, 처음 듣는 노래냐,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은 곡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노래가 아니면 무조건 새 노래고, 당연히 그런 새 노래는 따라 하기 힘들고, 익숙하지 않으니 불편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찬송가만 가락만 곡이고 그 외의 곡들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얕은 이원론적 사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새롭게 나오는 온갖 새 노래들을 맹목적으로 받아 수용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위의 다섯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의 틀에 담아 보는 자발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품에서 줄 자를 꺼내서 나의 기준치로 맞다 틀리다의 선을 긋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주체는 분명히 ‘내가 맞지만, 그 찬양의 존재 목적과 대상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찬양에 대한 기준이 내 안에만 있으니까, 그 내 기준으로 다양한 새 노래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찬양을 평가하고 내가 점수를 정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인가 아닌가... 내가 아는 곡인가 아닌가... 찬송가에 있는 곡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붙들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한, 절대로 ‘만족함’은 없습니다. 이 ‘만족함’은 철저히 ‘내 기준, 내 중심’에서의 만족함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 ◆ 정유성

갈리고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유다지파’와 ‘부흥한국’에서 사역했으며 〈물가운데 지날때에도〉, 〈하나님 눈 길 머무신 곳〉을 비롯하여 여러 곡을 작곡했고, 미국 엘바인 소재의 베델한국교회에서 사역 중이다. 2009년부터 포뉴스 워십(www.pworship.com)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현장을 유튜브와 무료 방송사역을 통해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 찬양한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되어

청년의 기도, 손경민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미국 남자하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46년 만에 금메달

### 선수들 신앙 고백과 고드로 추모 눈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46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미국 남자하키 금메달은 1980년 '미라클 온 아이스(Miracle on Ice)' 이후 처음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남겼다.

결승전은 캐나다와의 맞대결로 펼쳐졌으며, 정규 시간 동안 1-1로 팽팽히 맞선 끝에 연장전에서 승부가 갈렸다. 연장전에서 잭 휴스(Jack Hughes)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미국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겼다. 이 골은 현지 언론에서 '골든 골(Golden Goal)'로 불리며 대회 최고의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골키퍼 코너 헬러백(Connor Hellebuyck)은 이날 캐나다의 슈팅 42개 중 41개를 막아내며 팀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이 됐다. NHL 위너십 제츠 소속인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연속 선방을 펼치며 세계 정상급 골리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46년 만의 미국 남자하키 금메달...

'미라클 온 아이스' 이후 첫 정상 CP는 이번 미국 남자하키 금메달은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 이후 46년 만에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꺾으며 '미라클 온 아이스'라는 전설을 남겼고, 이번 밀라노 대회는 그 이후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결승전 내내 긴장감이 이어졌으며, 연장전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졌다. 휴스의 결승골은 경기장을 찾은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선수들 공개 간증 CP는 이번 미국 남자하키 금메달 여정에서 주목받은 또 하나의 요소는 선수들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다고 밝혔다. 수비수 재코브 슬라빈(Jacob Slavin)은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이끌었다.

슬라빈은 2024년 10월 기독교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스펙트럼(Sports Spectrum)'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분은 내 삶의 주님이며,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삶의 목적, 결혼 생활의 목적, 아버지로서의 목적은 모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이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줄리아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센터 타게 톰슨(Tage Thompson)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13세 때 자신의 신앙이 변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톰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분께 맡기고 여정을 즐길 수 있다"며 "God's in control"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을 요약했다. 그는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세 경기에서 득점하며 팀의 금메달 여정에 기여했다.

◆조니 고드로 추모... 금메달과 함께한 헌정의 순간 최승언 기자

금메달 확정 직후 미국 대표팀 선수들은 빙판을 돌며 고(故) 조니 고드로(Johnny Gaudreau)의 유니폼을 들어 올렸다. 고드로는 2024년 8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의 사고로 동생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니 하키(Johnny Hockey)'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그는 NHL에서 11시즌을 뛰며 활약했으며, 뉴저지 글로스터 가톨릭 고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였다. 가족은 대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그의 가장 큰 꿈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 “광야에 강을 내리라”... 예언 성취 믿음으로 세워진 페레스 평화혁신센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부 야코 해안에 자리한 페레스 평화혁신센터는 단순한 혁신 전시관이 아니다. 이곳에는 '광야에 강을, 사막에 시냇을 내겠다'(이사야 41:18)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세워진 공간이다.



페레스 평화 혁신 센터 ©이스라엘관광청

이스라엘관광청에 따르면, 1996년 설립된 이 센터는 이스라엘 제9대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몬 페레스의 비전에서 출발했다. 그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기술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신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관람객은 대형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홀로그램 전시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의료 기술, 농업 혁신, 수자원 관리 등 이스라엘이 이룬 성과를 체험한다. 단순히 '성공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변화시킨 신념과 비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특히 네게브 사막에서 발전한 첨단 관계 기술과 농업 프로젝트는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사야 35:1)이라는 말씀을 자연스

럽게 떠올리게 한다. 이곳에서 방문객은 성경의 언어가 상징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산업과 공동체 속에서 실재가 되었음을 목격한다.

센터는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의료 협력, 청소년 평화 교육,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을 통해 '평화라는 또 다른 예언적 과제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목적은 화해와 공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모든 관람은 가이드 투어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다. 약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지는 전시는 단순한 관광 코스를 넘어 신앙적 성찰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관광청은 "페레스 평화혁신 센터는 묻는다.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노후기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김하나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배스-김형진 3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403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928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5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1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서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10 류영모 목사의 만난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 (길요나)	30 휴먼네트(35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4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1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송병렬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5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다규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종준 목사(구덕교회)(166회)	00 하나님의 음성(178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연)(3455회) 레위기 10장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00 백설기(59회)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 (국영호) 30 GOODTV 특별기획 페허속에 갇힌 천년의 시간	00 CGN 비전특강(675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7회) 50 아메리카로 오십쇼(4회)	10 새롭게하소서(11060회) 정학영 대표 2부	00 THE 공금(8회) 더 공금한 '돈'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5회)
	10:00	00 어디까지 가요?(7회) 30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강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시토피아(8회) 12세	20 방주타GO!(2회) 50 선교마블 기도담합대(9회)	00 CBS NEWS 10 20 더 콜링(168회) 50 살롱 샬롱(43회)	00 강연소 송(52회) 움직임 리셋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5회)
11:00	00 한국교회를 논하다(577회) 50 김지연의 중독전쟁(35회)	00 행복한 쉼터 욕길 (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중 (박창건)	1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65회) 50 예수동행일기(10회)	00본 울포원(717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회) 찬양원 목사 여덟 번째 4강 육중서신 1: 십자가로 이기셨다 3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오후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한별	00 GOODTV 뉴스 30 오메가이더 금요성회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7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교회)(227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분영 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목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신-권성수/문대원 3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40 서정희의 매일성경(5회)	00 예배실황 꿈의 (김학중)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18회) 2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23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26회) 20 통복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59회)	20 풀다보면(8회) 요셉 1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4회) 50 더 메시지 시즌4(10회)	00 노크토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종준 목사(갈보리교회)(365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410회) 송주현 나은비 부부 1부	0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15:00	40 7000마라톤 스페셜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56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47회) 창세기 17장	00 2026 명성교회 3월특별새벽집회 주일찬양예배 1부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영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성교(윤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전 (권준호)	00 하용주 목사의 창세기 강해(41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7회) 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33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8회)	00 내 삶의 행복(19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1회)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장중현 목사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김자현) 40 아베스의 기도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13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4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49회) 50 행복다이아리(611회)	00 말씀의 창 아산신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설의 시간 장중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신앙에세이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중현 4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10 THE NEW 하늘빛향기(20회) 50 2026 KOSTA WORLD IN JEJU(6회)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TV강단 생수는 (최병남)	0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50 리바이츠 워십	
저녁	19:00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의-정의호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권대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 (황형택)	50 2026 KOSTA WORLD IN JEJU(6회)	00 TV강단 길트(채성철)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결-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더 메시지 10 예배실황 지구촌 (서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은(174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언치유 50 CBS 교회소식(1040회)	00 장중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모 가는 순례길
	21:00	00 박세현의 크로스뷰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부 미라클 30 서정희의 매일성경(5회) 50 CTS뉴스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 (안효관) 40 GOODTV NEWS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연)(3455회) 레위기 10장 50 성경꿀팁 이것이 공금하더(41회)	10 이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9회)
	22:00	20 하나님나라의 제자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강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오론교회 금요철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총성! 은혜로군(52회)	00 CBS NEWS 10 20 울포원(716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69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하용주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1061회) 50 은혜로운 찬송이기에(604회)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2024 파리 패럴림픽 특집 담담하고 위대하게	10 [퀵리슨] 선교로의 부르심(10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7회)	20 CBS 금요철야예배 (새예덴교회)(890회)	10 금요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Calling GOD(2444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시토피아(8회) 12세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2025 온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주재강의(11회)	10 새롭게하소서(11060회) 정학영 대표 2부	00 새예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24회)	00 더 메시지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온누리 사역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선택강의(9회) 4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194회)	00 신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76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41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 워십
	2:00	0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50 위대한 발걸음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39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600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성교회 양승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단나 (주님은 나의 최고분)(166회)
	3:00	00 7000마라톤 스페셜 50 할림송	10 GOODTV 특별간증	00 Cross Conference (Undefeated)(8회)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106회)	10 새롭게하소서(11409회) 송경준 간사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4:00	00 하나님의 손길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충신/이전호 45 곡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비전성교 분당우리 (이찬수) 3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정약비	10 [말씀] 박신웅 목사(엘바니온누리교회)(285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860회) 전도서 16장 50 CBS 교회소식(1040회)	00 김재원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